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

일러두기

- 1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은 기존에 발간된 밀양 읍면 단위의 향토지를 기본으로 각종 문헌에 수록된 밀양지역의 민요와 밀양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밀양아리랑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2 기본적으로 밀양아리랑의 제목(題目)과 관련 여음(餘音; 예,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 등)을 지니고, ‘지역·시대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歌詞)로 구성된 노랫말의 모음집으로 구성하였다.
- 3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삼고, 올바른 맞춤법 표준안(국립국어원, 2021년 기준)을 준거로 삼아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 하였다.
- 4 지역의 고유어(사투리)는 되도록 관습적 표기에 맞춰 기록하였고 다만, 분명한 오기(誤記) 및 오식(誤植)은 바르게 고쳐서 표기하였다.
- 5 여음구(餘音句)의 유사성과 문헌[증언]상의 밀양아리랑으로 명기[증언]된 노랫말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 6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의 가사집이 가사의 내용에 따라 목록별로 나누고 가사의 순서를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면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은 사전(辭典) 구성 형태를 갖추어서 추후 발견 및 발굴되는 밀양아리랑 노랫말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고 필요한 노랫말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밀양아리랑 아카이빙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7 기존의 수(首) 단위 가사, 노랫말의 정리를 보완하고자 곡(曲) 단위로 선곡(選曲)을 함께 제시하여 노래의 실상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지

선

달

꽃본

듯

이

좀

날

보

소

발간사



2012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이 등재되었습니다.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 온 우리 민족의 대중적이고 서정적인 민요입니다. 비록 노랫가락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각각의 노랫말에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과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일컬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밀양’이라는 지역성과 고유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쉬운 멜로디로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통속민요이기도 합니다.

밀양시에서는 소중한 무형유산 밀양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 전수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연 콘텐츠 개발 등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구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의 역사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의 역사와 오늘날의 기록, 그리고 유무형 자료를 기록물로 정리한 두권의 『있다, 밀양아리랑』을 발간하며 연구 분야에서도 유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판되는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도 그 결실 중 하나입니다.

밀양아리랑연구 출판브랜드인 『있다, 밀양아리랑』 시리즈 발간은 밀양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 그리고 연구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편적인 측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에 걸맞은 현재진행형으로써의 밀양아리랑을 살펴보기 위한 노력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의 경쾌하고 흥겨운 가락 속에는 영남과 밀양인의 생명력이 살아 숨 쉬며 희망찬 문화 밀양의 내일이 담겨있습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순간, 밀양아리랑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K-culture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윤정일 밀양아리랑보존회장님, 손정태 밀양문화원장님, 김현봉 밀양예총회장님, 진용선, 박경수, 서정매 밀양아리랑연구 자문위원님, 밀양아리랑 전승보존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을 위해 고생한 고려대학교 밀양아리랑 콘텐츠 연구팀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이 밀양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밀양아리랑의 저변을 넓혀 문화도시 밀양의 혁신과 도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밀 양 시 장
밀양문화관광재단이사장

박임호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의원입니다.

밀양시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밀양아리랑 기록 보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의 두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밀양아리랑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일호 밀양 시장 겸 밀양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과 민속예술단체, 전승보존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표 민요입니다. 그중에서도 밀양아리랑은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의 하나로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로 활용되는 등 우리 역사 속에서 늘 대중과 함께해온 친숙한 민요이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밀양아리랑은 밀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어 국제적인 위상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문화유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밀양아리랑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밀양아리랑의 유구한 역사와 기록을 담아 지난해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있다, 밀양아리랑』 시리즈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작업이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이 앞으로 밀양아리랑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며, 올바른 문화 전승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료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양·창녕)

曹海珍

축사



밀양의 대표 브랜드 밀양아리랑의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노래입니다. 특히 밀양아리랑은 우리 밀양인들의 자긍심이

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결사 항전의 의지와 주권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그리며 불렀던 광복군아리랑은 밀양아리랑에서 일부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 흘러가고 잊혀 갈 것입니다.

밀양아리랑의 노랫말은 수많은 문헌 등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으나 국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자랑스러운 밀양아리랑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밀양아리랑 아카이브를 정성을 다해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덕분에 밀양아리랑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밀양문화관광재단 이치우 대표님, 밀양아리랑연구팀 정고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과 『밀양이 전하는 30수의 아리랑』의 발간이 앞으로 밀양아리랑의 아카이브 구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밀양아리랑의 우수성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22. 10.

밀양시의회
의장 정정규

축사



우리 민족의 고유 노래인 아리랑이 2012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부터 밀양아리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이전에는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아리랑이나 전라도 진도아리랑에 비해 전승과 보존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였고 발전의 열의가 적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재 이후부터는 각계의 관심과 시민들이 밀양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밀양아리랑의 연구 발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밀양시는 문화관광과에 아리랑 계를 신설하여 밀양아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 진하고 있으며, 밀양문화재단에서는 아리랑 팀을 별도로 두어 밀양아리랑에 대한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며, 밀양아리랑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밀양아리랑 소리꾼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아리랑연구팀은 『있다, 밀양아리랑』 데이터베이스 편과 전승현황 편을 2021년에 발간하여 밀양아리랑의 이해와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에는 산재되어 있는

밀양아리랑의 노랫말들을 한곳에 모아서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어 밀양아리랑의 연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500여 수의 노랫말 중에서 고유성, 보편성, 작품성,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밀양아리랑 노랫말 30편을 선정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아리랑 기록보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박일호 밀양시장님, 이치우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정고운 아리랑 팀장님과 김명원 연구원님, 밀양아리랑 노랫말 제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일들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이 밀양아리랑의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저변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 10.

밀양아리랑보존회
회장 윤정일

민속콘텐츠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확장성

16

#1
민속콘텐츠 밀양아리랑
18

#2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여정
19

#3
밀양아리랑의
콘텐츠 확장성
26

#4
아리랑 문화도시 밀양
29

밀양아리랑 노랫말
30

#1
밀양아리랑의
여음(餘音)의 용례
32

#2
노랫말의 용례
56

밀양
아
리
의
랑
고
유
성
과
확
장
성

이 글은 필자의 연구(『민속콘텐츠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확장성』, 『인문사회21』12권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4.)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민속콘텐츠는 전래 서민대중(庶民大衆)의 민속문화(民俗文化)에서 비롯한 정신적·물질적 생산물이다. 이것은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에서 기원한 산물으로써 지역의 풍토와 정서를 깊이 반영한다.

민속콘텐츠의 하나로서 아리랑은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와 토속적인 민속문화 속에서 배태된 대표적인 민중(民衆)의 전승 가요, 민요(民謠)이다. 이것은 기층민중(基層民衆)의 거친 삶과 애뜻한 정감을 극진하게 담아낸다. 아리랑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유 지역의 향토 민속과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밀양시(密陽市)의 민속콘텐츠로서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살피고, 다양한 콘텐츠의 확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네스코(UNESCO) 한국무형문화유산(韓國無形文化遺產)인 아리랑의 문화도시로서 밀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밀양아리랑의 생명력과 축제성을 활성화한 밀양시의 국제적인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속콘텐츠는 민속(民俗)과 콘텐츠(Contents)의 합성어이다. 민속은 민중의 전래 습속(習俗), 습관이 된 풍속(風俗)을 일컫는다. 아울러, 콘텐츠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¹

다시 말해서, 민속콘텐츠는 민중의 풍속에서 비롯한 정신적·물질적 산물이다. 아리랑은 민중의 민속을 기반으로 한 가락, 노랫말, 기능 등의 고유 자질을 지닌 민속콘텐츠의 하나이다. 아리랑은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產)으로 2012년 등재된다.

1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 보편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지극히 단순한 곡조와 사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 쉽고, 여러 음악 장르에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밀줄 필자)²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아리랑’의 제목(題目)과 관련 여음(餘音; 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을 지니고,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를 활용(‘즉흥적인 편곡과 모방’)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로서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른다(**1**의 밀줄). 아리랑은 전승민요(傳乘民謠)로서 지역의 토속민요(土俗民謠)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통속민요(通俗民謠)까지 일컫는다.

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3. 8. 검색)

² 유네스코와 유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6316-2/>>(2021. 3. 26. 검색)

여타의 아리랑이 그렇듯이, 밀양아리랑은 토속성과 통속성을 지니고, 그 정확한 기원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밀양아리랑은 밀양의 토속을 구심력으로 하고, 민중의 통속을 원심력으로 한 흥미로운 민속콘텐츠이다.

민속콘텐츠로서 밀양아리랑의 고유 자질, 가락·노랫말·기능 등을 살펴보면, 여러모로 흥미롭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밀양아리랑의 가락은 “경상도 지역의 일반적 민요 토리라고 하는 ‘메나리조’와는 다른 곡조로서 불리고 있어 영남권 토속민요와 가락이나 선법에서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현, 2018: 104). 경상도 지역의 메나리조와 비교해서, 밀양아리랑은 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서 흥겨움을 자아낸다.

현장 구술(口述)과 노랫말을 채록한 소중한 자료를 통해서 밀양아리랑의 고유성을 살피고자 한다.

1 그때는 너무 먹고 살길이 바빠가 남의 집 고공살이 했어요. … 중략 … 밀양아리랑 그때는 남의 집 살면서 나무일 해가면서 그때는 산에 매일 갔어요. 나무해갓고 군불 떼고 소죽 끓여주고 일할 때 산에 나무하러 가면 동산을 올라가요. 지게 지고 도끼 메고 도끼 가지고 나무 쪼좌가 베가 내려오고 그럴 땐데. 그럴 때 지게 목발 두드리면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하면서 그다음에 노는 장소가 있어요. 쉬는 장소가 거 가면은 놀기 참 좋아요. 밀양아리랑 지게 목발 두드리면서 빙빙 돌고 이래 신나게 놀고 그래가 한참 쉬었다가 내려오면 죽 나무 짐 지고 산비탈을 내려오면 노래도 부르고 하면 하루 한 짐 때는 또한 짐 올라갈 때마다 ‘날춤보소’해가며 많이 불렀죠.

2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춤보소 날춤보소 동지선달 꽃본 듯이 날춤보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후략 …

(김경호 구술, 국립민속박물관, 2012: 114)

채록된 구술(1)과 노랫말(2)에 따르면, 밀양아리랑은 민중의 모질고 거친 삶과 힘겨운 노동의 현장에서 휴식(休息)과 유희(遊戱)를 돕는 기능을 한다. 남의 머슴 노릇을 하는 고공(雇工)살이,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땀감 나무를 지나를 때에 째째이 숨을 고르며 부르던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밀양아리랑의 한 가락은 신명과 위안이다. 이것은 노동요(勞動謠)이면서 유희요(遊戱謠)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 유희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밀양아리랑은 여성의 생활풍속과 내밀한 정감을 담아내기도 한다.

1 노래를 부르면 일하던 분들이고 할머니들이고 진짜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래 항상 가면 너무 반겨주고 손뼉도 쳐주고 거기 갔다 하면 밀양아리랑 너무 좋아합니다. ‘시어머니 죽고 나니 방너러 좋고 보리방아’ 이런 노래 부르면은 할머니들이 “아이고 맛다 맛다.” 하며 손뼉을 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어시랑 사라랑 춤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베게수침 낫거들랑 내 팔을 베거라’ 이런 노래 부르면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그래 ‘내잘났다 니잘났다 그 누가 잘나’ 이런 노래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맛다 노래 맛다.” 그러면서 항상 자주 오라 그라고 노래도 갔다하면 부르라 하고 장구도 북도 내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즐겁게 많이 놀아주는 편이지예. … 중략 …

시어머니 죽고나니 방 넓어 좋고
 보리방아 물부어다놓으니 생각이 난다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남의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우리집 저문동기 콩밭골만 탄다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어시랑 사라랑 춤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베게수침 낮거들랑 내 팔을 베거라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 후략 ...

(신명숙 구술, 국립민속박물관, 2012: 103~105)

밀양아리랑은 여성의 생활현장(1의 밑줄)에서, 시집살이의 공감과 내밀한 연정(戀情)을 여성의 목소리로 흥겹게 노래한다(2). ‘시어머니 죽고나니 방 넓어 좋고’, ‘우리 집 저 문동이[사내는 콩밭골[사타구니만 탄다(출근다)’, ‘베게 자리가 낮거들랑 내 팔을 베거라’.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2의 밑줄).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우습게, 때로는 정겹게 표현되는 사랑의 노랫말에서 여성의 삶과 발랄함이 느껴진다. 이처럼 밀양아리랑은 여성의 생활풍속, 여속(女俗)과 정감을 살피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밀양①아 성네에 사장구 소리
 동무난 큰애기 영덩춤만 추네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영남루② 굽이쳐서 아랑각③을 감돌고,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③을 비추네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삼각산 만백리 허리안개돌고
 나어디 신랑품에 잠잔둥만둥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 후략 ...

(신명숙 구술, 국립민속박물관, 2012: 105~106)

밀양아리랑은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애뜻한 전설을 노래에 담고 있다. 밀양①의 명승지인 영남루(嶺南樓)②가 등장하고, 그 아래에 아랑각(阿娘閣)③의 슬픈 설화를 언급한다. 아랑설화(阿娘說話)는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한(怨恨)을 신관 사또가 풀어낸 사연(事緣)’이 전하는 밀양 지역 고유의 옛이야기이다.

아버지가, 부친이 밀양백중놀이에서 참 잘하시고.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에서는 밀양아리랑을 너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밀양아리랑을 즐겁게 생각하고 노래를 항상 즐겨 불러라. 항상 이렇게 하시는 소리 우리 기억이 들거든에. 옛날에 촌에서 우리 아버님은 소죽을 끓이면 불로 여며도 항상 밀양아리랑을 저렇게 하시더라고. 항상 노래를 부르시던 기억이 납니다. 안 잊어버리고 잘하시대요.

…중략… 그리고 애들 다 크고 하니 백중놀이 생각이 나는 거래. 우리 할배가 “니 백중노래 한 번 들어가 봐라. 아버지가 그래 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니가 대로 한 번 있어봐라 이어 봐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백중놀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십일 년 지나나기까 몇 살 뎨가 모르겠다. 그때가 그래가 올해 딱 십일 년 지났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나네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이만침 흘러가버리고 백중놀이가 큰 낙입니다.

2

저 건너 저 집이 우리 님 집인데
지안오고 내안가니 수천리로드
아리랑다쿵 스리랑다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잘 넘어 간다
난리는 난다고 신문에 오고
장가뭇간 노총각이 안달이 난다
아리랑다쿵 스리랑다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 간다
내 딸 마실간다 송 보지 마라
느그딸년 안방 안에 사장기소리만 난다
아리아다쿵 스리랑다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 간다
오르막 내리막 잔지침소리
자다가 들어도 우리 님 소리
아리랑다쿵 스리랑다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 간다
오동나무 박달나무 팔자가 좋아
큰애기 손길에 다 놀아난다
아리랑다쿵 스리랑다쿵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 간다

(신인자 구술, 국립민속박물관, 2012: 99~100)

한편, 밀양아리랑은 밀양백중놀이(密陽百中놀이)에서 즐겨 불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2). 밀양백중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로서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 경 용(甬)날을 선택하여 지주들로부터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노는 놀이’를 일컫는다. 이 놀이는 ‘농신제, 작두말타기, 춤판, 뒷놀이 등의 민속놀이들로 구성되고, 이때 밀양아리랑이 함께 불린다.

이처럼, 밀양아리랑은 밀양 지역의 전래설화(아랑설화)와 민속놀이(밀양백중놀이)에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민속콘텐츠로서 밀양아리랑은 토속적이고 민중적인 상상력과 개연성의 산물이다. 이것은 밀양 지역의 전래설화와 민속놀이에서 배태된 고유성을 지닌다. 아울러, 밀양아리랑은 민중의 이산(離散), 디아스포라(Diaspora)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한반도 안팎에 퍼져있는 밀양아리랑을 비롯한 아리랑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이다. 여러 아리랑이 그리하듯이 밀양아리랑은 한국과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 전파되어 생명력을 지닌다. 대체로 아리랑의 전파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전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아리랑의 전파와 민족의 이주(移住)는 주권상실(主權喪失)과 무관하지 않다. 밀양아리랑은 잃어버린 땅, 국권(國權)이 상실된 일제강점기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 등에서 광복군, 일명 독립군의 아리랑으로 불린다(김연갑, 2002: 81~84). 밀양아리랑이 <광복군 아리랑>으로 불렸던 사실을 밀양의 서민대중은 기억하고 되새긴다.

1 이만득이라는 분이 내 위 선배인데 그 광복군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거 듣고 배워가. 해서 광복군 아리랑 많이 불렀죠. 때에 따라서 저 멀리 가서도 부르고.

2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바다에 두둥실 떠오는 배는
 광복군 실고서 오시는 배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아리랑고개에 북소리 둥둥 나더니
 한양서 복판에 태극기 날려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김경호 구술, 국립민속박물관, 2012: 115~116)

이처럼 밀양아리랑은 <광복군 아리랑>이 되고, 선배 세대에서 후배 세대로 입[口]으로 전하[고] 마음[心]으로 새겨서[綴], 구전심수한다(1의 밑줄). 다시 말해서, 밀양아리랑은 노동요와 유희요에서 광복군 제식의 의식요(儀式謠)에 이르는 확장성을 갖는다. 밀양아리랑은 민중 노동과 유희를 담던 흥겨운 가락에 군대의 제식을 위한 노래로써, 해방의 결의를 담아서 힘차고도 비장하게 불린다. 이것은 독립을 갈망하던 해방 전쟁의 군가(軍歌)인 <독립군 아리랑>과 밀접한 상관성이 읽힌다. <독립군 아리랑>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이조왕 말년에 왜 난리 나니.
 이천만 동포들 살길이 없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三千萬가슴에 光風이분다네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매고
 일제놈 쳐부쉬 조국을 찾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동실령고개서 북소리둥둥나더니
 내고향 산천아 너 잘있거라
 이내몸 독립군 떠나가노니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리를 보세
 부모님 처자들 이별을 하고서
 왜놈을 짓부쉬 승리한 후에
 아리아리 쓰리스리 아라리 닐네
 독립군 아리랑 불리를 보세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
 승전고 올리며 돌아오리라
 아리아리 쓰리스리 아라리 닐네
 독립군 아리랑 불리를 보세

(차병걸 노래, 김기현, 2018: 87~88)

〈독립군 아리랑〉은 영화(映畵) 〈아리랑〉(1926년 작, 나운규 감독)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김기현, 2018: 87), 노랫말(謠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밀양아리랑에서 배태된 〈광복군 아리랑〉과 그 뜻(광복의 염원)을 같이하는 동배(同輩)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광복군 아리랑〉과 〈독립군 아리랑〉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변아리랑’, 러시아의 ‘치르치크 아리랑’,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아리랑’ 등이 확인되고 있다(정호원, 2009: 45~48). 이것은 주권상실에서 오는 디아스포라의 자취와 그 변주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밀양아리랑을 비롯한 아리랑의 외연은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역사의 궤를 같이한다. 밀양아리랑에서부터 아리랑의 확장성, ‘아리랑 디아스포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속콘텐츠로서 밀양아리랑은 밀양 지역의 전래설화와 민속놀이에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밀양아리랑의 노랫말과 가락은 토속적이고 발랄한 민중의 생활경험에서 비롯한다. 이것은 밀양에서 배태된 고유성을 지닌다.

밀양아리랑은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민중의 디아스포라 여정을 따라서 밀양아리랑의 전파와 변주라고 할 수 있다. 밀양아리랑은 흥겨운 가락에 민중의 애환과 염원을 담은 노랫말로 확장성을 갖는다.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아리랑 디아스포라’ 지역의 국제적인 연대와 행사(예를 들어, 아리랑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혹은 비엔날레, 세미나 등)를 마련하는 것이 ‘아리랑 문화도시 밀양’의 명분과 위상을 다하는 일로 기대한다. 민속콘텐츠 밀양아리랑의 발랄한 생명력과 폭넓은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1

밀양아리랑의 여음(餘音)의 용례

(가나다순)

◆: 여음

여음(餘音)은 '노랫말의 앞뒤, 노랫말 사이의 입소리'를 일컫는다. 이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와 유산”(아리랑 편)의 용례를 준거로 삼는다. <[https://heritage.unesco.or.kr/6316-2/\(2021.3.26. 검색\)](https://heritage.unesco.or.kr/6316-2/(2021.3.26. 검색))>.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01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2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3 안철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4, 117.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4 박종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0, 113.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05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5.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6 신명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4.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07 이용만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3.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고 잘 넘어간다
08 이필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27.
- ◆ 아리당다꽁 쓰리당다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09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밀양아리랑>(노동), 국립민속박물관, 2012:114.

◆ 아리당다콩 스리당다콩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10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밀양아리랑>(노동·유희),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117.

◆ 아리당닥 스리당닥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11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 아리당닥 스리당닥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12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 아리당닥궁 스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잘 넘어간다

13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잘 넘어간다

14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영절시구 잘 넘어간다

15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22.

◆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16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17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 아리당닥궁 쓰리당닥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시구 날 넘겨주소

18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34.

◆ 아리덩덕 쓰리덩덕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83.

◆ 아리덩덕궁 쓰리덩덕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20 <신밀양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기)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운동가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7.

◆ 아리덩덕궁 쓰리덩덕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21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 아리둥다궁 쓰리둥다궁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22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시구 날 넘겨주소

23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3.

◆ 아리랑다궁 쓰리랑다궁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2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0.

◆ 아리랑다궁 스리랑다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25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밀양아리랑>(유희), 국립민속박물관, 2012:103~105.

◆ 아리랑다궁 스리랑다궁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26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밀양아리랑>(유희), 국립민속박물관, 2012:100.

◆ 아리랑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넘어 간다

2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 아리랑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28 안미정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1.

◆ 아리랑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29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0.

◆ 아리아리 스리쓰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3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를 보세

31 차병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32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광복군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116.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하)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9.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34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6.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5 우제강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6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채보, 진용선, 2000:163.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7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채보, 진용선, 2000:162.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8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8.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3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4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6.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41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88.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4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9.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4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44 우제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 아리아리랑 스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45 천용,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16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4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47 신옥화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4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49 우제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1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2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13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2.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7 이은주 노래, 〈밀양아리랑〉, 한국 민요집 제2집(LP), 대한음반제작소, 1995.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8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4.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59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4~115.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0 신옥화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진용선, 2000:126~12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1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4.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2 신영무 구술 [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12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3 신영무 구술 [당시 75세, 밀양], 〈밀양아리랑〉(유희),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6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0.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65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8.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66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67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20.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68 이경자 구술[당시 83세, 밀양], <밀양아리랑>(유희),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겨주소

69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70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1.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71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20.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날 넘겨주소

72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8.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54.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5 리현기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6 리현기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진용선, 2000:126.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간다

77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295.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3.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넘어 넘어간다

7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23.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눈만 슬쩍

8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99.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눈물만 출렁

8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99.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시구 날 넘겨주게

8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 21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시구 아라리요

83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31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얼씨구 나라든다

84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317.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하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8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 304.

◆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8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51.

◆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87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23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88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 16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도 넘어간다

89 리순옥 노래 [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 33~3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잘도 넘어간다

90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 6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9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5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92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 18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삼천리 금수강산에 꽃이 피네

93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 14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고개로 날 넘겨주소

94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 11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냉기주소

9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4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냉기주소

9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3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냉기주소

9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6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98 <밀양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전시 가사, 202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99 윤경란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 26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0 박문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24, 22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1 오세양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2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3 장석순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12, 21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4 조희운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18, 22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5 김순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04, 20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6 이경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200, 20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7 손기복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7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8 박정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7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09 유시중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8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0 권효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1 박희남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08, 21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2 신영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3 박희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4 김공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5 김분이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0, 15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6 정서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4, 15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7 김은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8, 16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8 황중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62, 16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19 이재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2, 14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0 추금식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3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1 손기복 외, 범흥상원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2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범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3 이명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6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4 이경림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5 박정윤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6 이미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4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8 서정매 (채보),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29 손득현·손기복, 범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범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0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1 박문호 외, 무안용호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2 이미령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3 박현옥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4 이명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6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5 한옥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6, 14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36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7 김정화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4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8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새싹회, 1961: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0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1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42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3 김동환, 『한국민요곡집(韓國民謠曲集)』, 음악춘추사(音樂春秋社), 1988:8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4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4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46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7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48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22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49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5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2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3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6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4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56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11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5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5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59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0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3 정진호, 『한국민요대전집(韓國民謠大全集)』, 소리출판사, 1978:4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5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66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3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냉기주소

16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168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16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Ⅳ』, 집문당, 1979:53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17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17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기주소

17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9.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17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8.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17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75 아리랑 친구들, 밀양문화재단, 2012:270~29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76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
(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어절씨구 잘 넘어간다

17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얼사구 아라리가 났네

178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27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17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180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16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얼씨구 아라리가 났네

18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18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50.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183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아카이브, 2019:96.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184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박물관, 2017:65.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 고개를 날 넘겨주소

18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열 놈이 자빠라져도 나는 놀아 볼라네

18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4.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기주소

18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7.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188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오
독립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189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군이 불렀다고 전하는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1.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날 넘겨주소

19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V』, 집문당, 1979:535.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넘하고 놀자

191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5.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응 얼씨구 날이 져네

19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6.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당닥공 쓰리당닥공 아라리가 났네

193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8.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94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9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9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노다 가세

19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6.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노다 가세

197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날이 져네

198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노다 가세

19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12.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놀다 가세

20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얼씨구 넘하고 놀까

201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오
광복군 아리랑 불러보세

202 한중수,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 『광복군가집』, 1943:9.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오
광복군 아리랑 불러보세

203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오
광복군 아리랑 불러보세

204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 아리아리랑 어리어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으얼씨구 날 넘겨주소

205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촉조선소리반, 1926.

#2 노랫말의 용례 (가나다순)

가고 싶은 일본 동경 못 가게 되고 / 살기 싫은 시집살이 또 살게 되네

20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가냘픈 아랑의 고운 자태 / 죽어도 방혼이 남아있네

20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가는 님 허리를 어다담씩 안고 / 죽이라 살리라 사생결판 한다

20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4.

가는 님의 허리를 거금쳐 안고 / 가기만 말라고 생야단한다

20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가는 님의 허리를 거금쳐 안고 / 가기만 말라고 생야단한다

210 우제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가는 임의 허리를 거금쳐 안고 / 가지만 말라고 생야단한다

211 우제강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가는 님의 허리를 거금쳐안고 / 가지만 말라고 생야단 한다

21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7.

가실에 백로 앉고 용포에 꿈을 꾸니 / 여기가 어데고 소태동 부가

213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2 (『밀양문학』, 2002, 34~37 수록).

가자 가자 뒷산 가자 빈 지게 지고서 / 올 때는 이 산천에 나무 한 짐 징가서

214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가장꿀 삼태봉 우뚝 솟아 있고 / 큰 곱티기 흙 맛이 달달하다

21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날 없고 / 자식 많은 우리 부모 속 편할 날 없네

21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간다 간다 간다 가요 나는 가요 / 한양 낭군 버리고 나는 가요

217 우재강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간다 간다 간다 가요 나는 가요 / 한양 랑군 버리고 나는 가요

21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간다 간다 간다 가요 나는 가요 / 한양 랑군 버리고 나는 가요

219 우재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님을 따라 꽃을 따라 나는 간다

220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8.

간다 간다 간다가요 나는 가요 / 한양랑군 버리고 나는 가요

22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7.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해를 등지고 / 뒷산에 걸쳐있는 달 따로 간다

222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갑세 갑세 어서 갑세 나를 따라오소 / 기세 좋은 천리마 타고 나를 따라오소

223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43.

갔던 이 돌아오니 동네가 들썩 / 나도 좋아 너도 좋아 모두가 좋아

224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불어요 / 삼천만 가슴에 강풍이 불어요

225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경부선 고속열차 어서 바빠 타고 보면 / 서울 밀양 천 리 길도 만나절에 오간다

22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의 요지 / 간촌과 광나리는 왜적 막던 싸움터

227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향토문화』, 1953:82~84 수록).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의 요지이요 / 간촌과 광나리는 왜적 막던 싸움터라

228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경부선 삼랑진은 교통의 요지이요 / 간촌과 광나리는 왜적 막던 싸움터라

22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1.

고구마 오는 처녀 가는 총각 다 뽑아먹고 / 아저씨 먹을 거는 한 뿌리도 없네

230 이경자 구술[당시 83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고금에 시인 목객 영남루에 모이고 / 속세를 멀리하고 태평성대 부르네

23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고금에 시인 목객 영남루에 운집하여 / 속세를 멀리하고 태평성세 노래하네

232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고동만 때 때 치는데 헤헤 / 정든 님 부여잡고 인사를 못해

23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고려 때 싸움터 병구는 예림 / 쌀도 많고 맥문동도 많다고 하네

234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고려 때 싸움터인 병구는 예림 있고 / 쌀도 많이 나지마는 맥문동 많다 하네

23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1.

고려 때 싸움터인 병구는 예림 있고 / 쌀도 많이 나지마는 맥문동 많다 하네

236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고야천 맑은 물엔 은어 떼가 가득 / 덕달리 가림들에 새 말띠기 구경 가자

237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3.

고추 농사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성원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238 권효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9.

공자님이 콩이라고 운을 띄워 / 농부들아 콩이라 불러주소

239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공자님이 콩이라고 운을 띄워 / 농부들아 콩이라 불러주소

240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공장이 들썩 공단이 들썩 인천이 들썩 / 우리 노동자 단결하니 전국이 들썩

241 <신밀양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에 노가바(노레가사 바꾸기)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운동가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7.

과장이 벌령 상무가 벌령 사장이 벌령 / 민주노조 결성되니 회장이 벌령

242 <신밀양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에 노가바(노레가사 바꾸기)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운동가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7.

광풍이 분다네 광풍이 분다네 /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243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244 한중수,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 『광복군가집』, 1943:9.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245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광복군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116.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246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 산비탈에 곱게 핀 꽃 구경 가세

247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새싹회, 1961:6.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 산비탈에 곱게 핀 꽃 구경 가세

248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V』, 집문당, 1979:535.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 산비탈에 곱게 핀 꽃 구경 가세

249 이경림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구경 가세 구경 가세 구경 가세 / 산비탈에 곱게 핀 꽃 구경 가세

250 윤석중, <어린이 밀양아리랑>[『우리민요 시화곡집』, 1961],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9.

구월이라 중앙절 날자 없는 제삿날 /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왜 안 오나

25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구절 장삼 노선사는 백팔염주 목에 걸고 / 아미타불 염불하니 극락세계 여기네

252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3.

국농소 넓은 들에 이삭 줍는 얘기가 / 집단 채로 내다 주마 백년해로하자

253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국화전 서물한 산 진주동 배를 모아 / 지사동 학서학지 무릉동 돌아들어

254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2.

그 자취 학과 같아 안개비에 젖어있고 / 천년세월 다지나도 강은 절로 흐르네

255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그런 마음 가진 당신 나는 좋아 / 꽃가마 오면은 당신을 따를께

256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금강산을 탐내는 미국놈들아 / 침략만 해봐라 다리를 자르리

257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금선아 옥선아 니 어디 가노 / 인물이 잘나서 청로에 간다

25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금실금실 자라나서 열매 한 쌍 열렸네 / 열린 열매 그 이름이 무엇인고

259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금실금실 자라나서 열매 한 쌍이 열렸네 / 열린 열매 그 이름이 무엇인고

260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기계 모는 저 총각 거동 좀 보소 / 운전대 잡고서 눈만 슬쩍

26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99.

기름진 넓은 들판 연년세세 태평성세 / 속절없는 세월 속에 인걸은 간데없네

262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기차 전차 떠난 뒤에 철까치가 울고 / 정든 임 떠난 뒤에 빙모님 딸님이 운다

263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길 잃은 나그네야 황학루 찾지 마라 / 남주의 명승지는 영남루가 제일

264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길가에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주막집 술맛이 고와야 좋다

265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

길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주막집 술어마시 고바야 좋다

266 신영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6.

꽃 같은 날 두고 왜 한 번도 안 오나 / 아이구야 보고파서 환장을 하네

267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꽃 같은 날 두고 왜 한 번도 안 오나 / 아이구야 보고파서 환장을 하네

268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꽃 같은 날 두고 왜 한 번도 안 오나 / 아이구야 보고파서 환장을 하네

26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꽃밭 속은 용소로 둘러 있고 / 사지 상봉 상상봉엔 상원암이 번뜩

270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4.

꽃이라도 낙화되면 오던 나비 아니 오고 / 낭기라도 고목 되면 오던 새도 안이 오네

27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나는야 군인 그대를 사랑할 수 없네 / 그댈 위한 꽃가마 없어 결혼은 못하네

272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핀들 뭐하나 / 임 없는 사창에 달 뜬들 뭐 하나

273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나비아 범나비아 무슨 꽃이 져 좋노 / 아드랑 땅 땅 짚레꽃 보기 좋다 함박꽃

27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낙동강 전주야 우짖 배가 돌이던가 / 앞에 배는 입을 신고 뒤에 배는 날 신고

27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낙동강 칠백 리 유리 공글 놓아 / 대가리 없는 기차가 왕래를 하네

276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 318.

낙동강 칠백 리 유리공글 놓고 / 열두 칸 기차가 왕래를 하네

277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난리는 난다고 신문에 오고 / 장가 못간 노총각이 안달이 난다

278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 99~100.

날 데리고 가거라 날 데리고 가거라 / 복 많은 총각아 날 데리고 가거라

279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0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 1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1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 114, 11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2 추금식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 13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3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 116~11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4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 10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5 <밀양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전시 가사, 202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6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조금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88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 47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조금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28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조금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29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5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구름 속에 달 본 듯이 날 줌 보소

291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31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조금 보소

29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 6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3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아카이브, 2019: 9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4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 23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5 박문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 22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6 박정윤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7 우재강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8 유시중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8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299 김은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8, 16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0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1 이은주 노래, <밀양아리랑>, 한국 민요집 제2집(LP), 대한음반제작소, 199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2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3 손기복 외, 범홍상원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4 이미령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5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6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8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09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0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1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4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3 이미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4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4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5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6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7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3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8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16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1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8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0 김동환, 『한국민요곡집(韓國民謠曲集)』, 음악춘추사(音樂春秋社), 1988:8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1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2 아리랑 친구들, 밀양문화재단, 2021:290, 29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0, 4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4 우재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6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7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박물관, 2017:6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8.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2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0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1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2 천웅,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16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3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傳文學大系)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22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4 리현기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5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6 정진호, 『한국민요대전집(韓國民謠大全集)』, 소리출판사, 1978:4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7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8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39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1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29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2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4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5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7 김상환,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3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49 리순옥 노래 [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33~3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0 서정매 (채보),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1~1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1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2 리현기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진용선, 2000:12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3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채보, 진용선, 2000:16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4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5 안유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8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6 권효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7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5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0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5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23.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짓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68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정말 좋다

369 박현옥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1.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이양기에 올라앉아 기계 모내오

37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99.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71 신명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7.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372 이용만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3.

날씨가 좋아서 빨래질 갔더니 / 정칠 놈 만나서 돌베개 뺏네

373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날아가는 저 기러기 이내 소식 전해도 / 이내 몸은 잘 있다고 전해다오

374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남내골 샌님이 자원을 하여 / 아랑의 원한을 풀어 주었네

37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4.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고서 / 우리 집 저 문디는 콩밭 골만 탄다

376 이재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2.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 우리 집 저 문둥이 콩밭 골만 탄다

377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4.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 우리 집 저 문디는 콩밭 골만 탄다

378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 우리 집 저 문딩이는 콩밭 골만 탄다

379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남의 집 서방님은 가마를 타는데 / 우리 집에 저 문둥은 콩밭 골만 탄다

380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남조선 바라보니 가슴이 아프네 / 북조선 백성은 행복하다네

381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남주에 우뚝 솟은 영남루 올라서서 / 산천초목 풍월 실어 신선놀이 하여보세

382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9.

남주에 우뚝 솟은 영남루에 올라서 / 산천초목 풍월 실어 신선놀음하세

383 이중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남쪽엔 마암산 흰 산이 되고 / 북쪽엔 아북산이 둘러 있네

384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5.

남천강 굽이 돌아 령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8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남천강 굽이쳐서 령마루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8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남천강 굽이쳐서 령마루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8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88 정진호, 『한국민요대전집(韓國民謠大全集)』, 소리출판사, 1978:45.

남천강 굽이쳐서 령남루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8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로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치네

39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로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치네

39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로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7.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로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치네

393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傳文學大系)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226.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4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채보, 진용선, 2000:163.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5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40.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7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8 <밀양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전시 가사, 202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399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0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47.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1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2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8.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6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40.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7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8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233.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09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6.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4.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1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이 아랑각을 비추네

41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50.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이 아랑각을 비추네

41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9.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4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십오야 밝은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5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6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7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8 안철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4.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19 손기복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73.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20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 허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친다

42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7.

남천강 기슭에 조는 백로야 / 네 무슨 소식 있어 저래토록 싶는가

42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남천강 부딪혀서 영남루를 맴돌고 /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23 김공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59.

낮이랑 짝 같아서 바지게 매고 / 운심이 무덤에 풀비리 가자

42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내 고향 산천아 너 잘 있거라 / 이내 몸 독립군을 따라가노라

425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내 고향 산천아 너 잘 있거라 / 이내 몸 독립군을 따라가노라

426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내 고향 산천아 너 잘있거라 / 이내 몸 독립군 떠나를 간다

42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

내 딸 마실간다 송보지 마라 / 느그 딸년 안방 안에 사장기 소리만 난다

428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0.

내 말 듣소 내 말 듣소 내 말 좀 듣소 / 그믐날에 궂은비에 달도 뻗소

429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17.

어서랑살랑 춤거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배개 주춤 낮거들랑 내 팔을 비어라

430 박종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0.

내가 잘나 네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 배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31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275.

내가 잘나 네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 백동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32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4.

내가 잘나 네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 백동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33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I』, 집문당, 1974:716.

내가 잘나 네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배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3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6.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 뒷동산 매아미나 울어나 줄까

43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 뒤동산 소나무 매아미나 울어 줄거나

43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 뒷동산 소나무 매아미나 울어 줄거나

43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4.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 뒷동산 소나무 매아미나 울어줄거나

438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 뒷동산 소나무 매아미나 울어줄거나

43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275.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고춧값이 좋아 / 어제보다 대박 나서 너무 좋아

440 김정화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44.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고춧값이 좋아 / 어제보다 대박 나서 너무 좋아

441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넘어가네 넘어가네 또 넘어가네 / 새마을 주택 농가 부채로 잘 넘어간다

44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넘어가네 넘어가네 또 넘어가네 / 새마을 주택 농가 부채로 잘 넘어간다

44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내가 잘 나 내가 잘 나 그 누가 잘 나 / 양인이 정들면 다 잘났지

444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백통 은전지화 제 잘났지

44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1.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양인 정들면 다 잘났지

44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양인이 정 들면 다 잘났지

44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1.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양인이 정 들면 다 잘났지

44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3.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양인이 정들면 다 잘났지

44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275.

내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양인이 정들면 다 잘났지

450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놀다 가소 놀다 가소 놀다 가소 / 저 달이 질 때까지 놀다 가소

451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농군마다 선비 되면 농사일은 누가 하노 / 의사마다 병 고치면 북망산천 누가 가나

45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농암대 구경하고 오목골 밟아서 / 열두들 넘어서면 연화동 꽃밭

453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4.

농협 보소 농협 보소 장사꾼들 보소 / 기업가들 물건 파는 대리점 보소

454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농협 보소 농협 보소 장사꾼들 보소 / 기업가들 물건 파는 대리점 보소

455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높다란 용마루는 하늘에 닿아 있고 / 남쪽 포구 흐른 강은 낙동으로 이어져

45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누각 머리 뿔피리 소리소리 목 메이면 / 누각 앞 대숲에는 아랑의 냇이 우네

457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뉘라서 닷할 건가 영남루 이 경치를 / 남국의 산천 경관 이만하면 으뜸이지

458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능파당 침류각은 풍진 세상 다 겪어도 / 쪽빛 푸른 응천은 천년 두고 지켜오네

45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능파당 침류각은 풍진세상 다 겪어도 / 쪽빛 푸른 응천강을 천년 두고 지켜보네

460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늬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61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

니 몸은 젊어지고 우리 인생은 늙고 / 우리네 한번 인생 불귀로다

462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니 잘났나 내 잘났나 그 누가 잘나 /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젤 잘났지

463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니 잘났나 내 잘났나 그 누가 잘나 / 은전지화 구리 백통 지 잘났지

464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

니 잘났나 내 잘났나 누누가 잘 났노 / 은전지화 구리백동 돈 지 잘났다

46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3.

니 잘났나 내 잘났다 그 누가 잘나 / 은화 동전 구리 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66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 누가 잘나 / 구리 백동 지전이라야 돈 잘났지

467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7.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백통 지전이라 니 잘났네

468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축조선소리반, 1926.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6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구리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470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49.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니가 잘라 내가 잘라 그 누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9.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은화 동전 구리 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3 신옥화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진용선, 2000:126~127.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은화 동전 구리 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4 우계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 은화 동전 구리 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5 신옥화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7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2.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8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뉘가 잘나 / 은하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8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13

니가 잘나 내가 잘나 누가 잘나 / 은화 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나

48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구 누가 잘나 / 니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구 누가 잘나

483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8.

니가 잘라 내가 잘라 그 누가 잘라 / 은화동전 구리백동 십 원짜리가 잘라

48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다 끝났네 다 끝났어 다 끝났네 / 밀양강의 날씨가 절단 났네

485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다 모였네 / 우리는 이웃사촌 다 모였네

486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시집가기 다 틀렸네

487 박문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24.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시집가기가 다 틀렸네

488 박정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79.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네

489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8.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시집가긴 다 틀렸네

490 천웅,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168.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장가가기 다 틀렸네

49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장가가기가 다 틀렸네

492 우계강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장가가기가 다 틀렸네

49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 타고 장가가기가 다 틀렸네

494 우계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가마타고 장가가기가 다 틀렸네

49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7.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당나귀 타고 장가가기 다 틀렸네

496 천용,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168.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당나귀 타고 장가가기 다 틀렸네

49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시골 총각 장가가기는 다 틀렸네

498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 시골 총각 장가가기는 다 틀렸네

499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다리 다리 다리야 수산 다리야 / 사공들에겐 철천지 원수야 다리

500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다리 다리 철구 다리 수산 다리야 / 이제나 뱃사공은 뭘 먹고 사나

501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달밤에 홀로 일어 영남루에 오르니 / 어디서 부는 통소 내 마음을 설레네

50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달밤에 홀로 일어 영남루에 오르니 / 어디서 부는 통소 내 마음을 설레네

50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담 넘어 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0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담 넘어 올 넘어 꼴 비는 총각아 / 눈치나 있거들랑 떡 받아라

505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담 넘어 올 넘어 꼴 비는 총각아 / 니 언제 커서러 내 낭군 될래

50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선 발발 떠다

50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1.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선 발발 떠다

508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09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3.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0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1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2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3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4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담 넘어갈 때는 큰맘을 먹고 /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다

515 안철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4, 117.

당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만탱이 없어놓고 만단 말가

516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당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만탱이 없어놓고 만단 말가

517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대라천 번거로이 문지를 마소 / 남주의 높이 솟은 영남루가 신선 누각

518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대숲에 우거진 영남루에 / 백화가 난만히 피어있네

519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대숲이 우거진 영남루에 / 석화가 난만히 피어있네

52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덕대산 예 성터 흔적은 없으나 / 소구령 폭포수에서 약수가 나네

521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덕대산 옛 성터 지금은 흔적 없고 / 소구령 폭포수에 약물 찾아 많이 온다

52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2.

덕대산 옛 성터 지금은 흔적 없고 / 소구령 폭포수에 약물 찾아 많이 온다

523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도라지 병풍 여단이 속에 곤히 잠든 큰아가 / 낭군님이 왔단다 문 열어 도고

52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도리 납짝 접시꽃 허리 짤썩 담배꽃 / 이 꽃 저 꽃 다 제끼 놓고 목화 꽃이 제일이라

52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도화 일지 꺾어 들어 승학동 학을 타고 / 동화전 건너 돌고 당모랭이 도네

526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2.

돈 닷 돈 다 돼서 콩밭 골에 갔는데 / 물명주 단 속곳 개똥칠만 했네

527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돈 닷 돈 바래서 콩밭 골에 갔더니 / 물명주 단속곳 개똥 칠만 했네

528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경계 짓고 / 숲도 질다 동북 숲은 긴 늪서 다안

529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경계디니 / 숲도 질다 동북 숲은 긴숲서 다안까지

530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동북천 모인 물이 산외면 경계디니 / 숲도 질다 동북 숲은 긴숲서 다안까지

53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0.

동서남북 이십사방 다 댕기도 / 내 갈 길이 아예 없어 못 가겠네

532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등등 나더니 / 내 고향 산천아 너 잘 있거라 / 이내 몸 독립군 떠나가노니

533 차병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이 노래의 경우, 두 줄 형식에서 세 줄 형식이 함께 확인된다.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등등 나더니 /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려요

534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등등 나더니 /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려요

535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뚝뚝 나더니 / 한양성 중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리네

536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동짓달 동짓날에 팔죽을 끓이니 / 팔죽 한 그릇 먹고 나니 나이 한 살 더 먹네

53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동쪽에서 아리수 북쪽에서 쓰리수 / 응천에 미리벌 용이 솟아 승천하네

53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동쪽의 아리수 북쪽의 쓰리수 / 미리벌 응천에서 용이 솟아나네

539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동해 용왕 다 화해서 미륵과 돌이 되니 / 이름은 만어사요 돌마다 쇠소리라

54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1.

동해 용왕 다 화해서 미륵과 돌이 되니 / 이름은 만어사요 돌마다 쇠소리라

541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동해 용왕 화해서 미륵 돌 되니 / 만어사 돌마다 쇠소리가 나네

542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동해 용왕 화해서 미륵 돌이 되니 / 만어사 돌마다 쇠소리 나네

543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동해 용왕 화해서 미륵돌이 되니 / 만어사 돌마다 쇠소리가 나네

54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돼지 양이 수녀가 돼도 시집을 못가 / 장사꾼과 사료공장만 재미 보네

545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돼지 양이 수녀가 돼도 시집을 못가 / 장사꾼과 사료공장만 재미 보네

546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뒷산에 호랑이 무섭다 해도 / 시아방이 만치나 더 무섭겠나

54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들풍년 산풍년 만풍년 들어라 / 우리 동네 온 나라 풍년 잔치 얼씨구

548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또 팔았네 또 팔았네 논 팔았네 / 자식새끼 학비 대느라 논 팔았네

54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또 팔았네 또 팔았네 논 팔았네 / 자식새끼 학비 대느라 논 팔았네

550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마음 맞고 일손 맞아 좋기도 한데 / 말 못하는 그 사연 논물만 출렁

55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99.

마중 가세 마중 가세 마중 가세 / 달님 같은 우리 누나 마중 가세

552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세싹회, 1961:6.

마중 가세 마중 가세 마중 가세 / 달님 같은 우리 누나 마중 가세

553 이경림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마중 가세 마중 가세 마중 가세 / 달님 같은 우리 누나 마중 가세

554 윤석중,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9.

막걸리 한잔에 웃음 나고 / 손수건 한 장에 정이 든다

55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막아 주소 막아 주소 영장가지 막으소 / 짚레꽃은 피더라도 곳가지는 막으소

556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만고의 이 강산 주인이 누구던고 / 누각은 높이 솟아 응천을 놀렸네

557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만고의 이 강산에 주인이 누구던고 / 누각은 높이 솟아 응천을 놀렸네

55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만동서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만동서 죽고 나니 큰방 차지가 내 차지

559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만동서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만동서 죽고 나니 큰방 차지가 내 차지

560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만동서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드이 / 만동서 죽고 나니 큰 방 차지가 내 차지

56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망두석도 짝이 있고 미신 짝도 짝이 있고 / 채찍 같은 내 팔자야 와 이렇노

56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맹년 삼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피지만 /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못온다

56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줄뽕남게 앉았네 / 울뽕 줄뽕 내 따줄게 백년 내강 살자

56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머리아 좋고 실한 처자 울뽕 남게 안자 우네 / 울뽕들뽕 내 따줄게 백년가약 하자구요

56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5.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 서러 마라 / 맹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핀다

566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모시아 적삼 안섰 안에 분통 같은 저 젓 보소 / 많이 보면 병 날 끼고 담배씨 만치만 보고 가소

56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모시아 적삼 안섰 안에 연적 같은 저 젓 바라 / 오미 가미 빛만 비이고 대장부 간장 다 녹인다

56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모였네 모였네 여기 다 모였네 / 우리는 한나라 이웃사촌이라네

569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못 갠졌네 못 갠졌네 못 갠졌네 / 금년 농사 다 팔아도 못 갠졌네

570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못 갠졌네 못 갠졌네 못 갠졌네 / 금년 농사 다 팔아도 못 갠졌네

571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못 살졌네 못 살졌네 고춧가루 비싸서 / 우리 점방 못 살졌네 고춧가루 비싸서

572 김정화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44.

못 살졌네 못 살졌네 못 살졌네 / 마누라 무서워서 못 살졌네

573 오세양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1.

못 준다 못 준다 내 절대 못 준다 / 그 댕기를 줄라하면 백년헤로하소

57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무봉사 만종 소리 먼 회포 떠올리면 / 동쪽 하늘 흰 구름은 용두산을 넘는다

57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무봉사 만종 소리 먼 회포 떠올리면 / 동쪽 하늘 흰 구름은 용두산을 넘어간다

57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7.

무안이라 귀나리에 사명대사 나셨고 / 삼강동 골짜기에 열녀 효부 많더라

577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무정 세월아 가지를 말아 / 장안에 청춘이 다 늙어간다

57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무정 세월아 오고 가질마라 / 장안에 청춘이 다 녹는다

579 이은주 노래, <밀양아리랑>, 한국 민요집 제2집(LP), 대한음반제작소, 1995.

무정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 산란한 요네 가슴 더 산란하다

580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무정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 산란한 요네 가슴 더 산란하다

58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무정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 산란한 요네 가슴 더 산란하다

582 밀양아리랑계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계집전위원회, 1999:50.

무정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 산란한 이내 가슴 더 산란하다

583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58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585 우계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58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2.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날아난다

58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날아간다

58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문경새재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58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문경새재는 웬 고쟁가 /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 난다

59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문경새재는 웬 고쟁인가 /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로다

591 이은주 노래, <밀양아리랑>, 한국 민요집 제2집(LP), 대한음반제작소, 1995.

문경새재의 박달나무 /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592 정진호, 『한국민요대전집(韓國民謠大全集)』, 소리출판사, 1978:45.

문경아 새재는 웬 고개던가 /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 난다

593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축조선소리반, 1926.

물 길러 가는 채 술 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4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물 길러 가는 채 술 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5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6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8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599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600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숲속으로 님 마중 가누나

60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물 길러 가는 체 술 걸러 이고 / 오동나무 수풀 속에 임 찾아간다

602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물동이 안에도 술 받아 이고 / 고개춤 추다가 술 다 쏟았네

603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물레방아 궁굴대 물을 안고 돌고요 / 우리 집 저 양반은 나를 안고 도네

60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05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06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0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08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물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09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물명주 단속곳 줄 맞춰 입고 / 유리 영창 반만 열고 낮잠 잔다

610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물명주 단속곳 줄 맞춰 입고 / 유리 영창 반만 열고 낮잠 잔다

611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물명주 단속곳 줄 맞춰 입고 / 유리 영창 반만 열고 낮잠 잔다

61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1.

물명주 안 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13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물명주 안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614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물명주 탄 속곳 널러야 좋고 / 홍당무 치마는 붉어야 좋다

615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45.

물이라도 폭포 되면 오던 고기 안이 오고 / 우리 인생 한 번가면 다시 오기 어렵나니

61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밀양 땅 오시면 나를 찾소 / 살구꽃 붉게 핀 옆집이요

61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4.

밀양 땅 큰애기 미나리 장사로 놓고 / 무안 땅 큰애기 고사리 장사로 논다

61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문화놀이보존회, 2020.

밀양 성내의 사장구 소리 / 자다가 들어도 내 낭군 소리

619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밀양아 남천강 돛단배 떴고 / 큰애기 술잔에 금붕어 떴다

620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밀양아 남천강 돛단배 떴고 / 큰애기 술잔에 금붕어 떴다

621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7.

밀양아 남천강에 돛단배 뜨고 / 큰애기 술잔에 금붕어 떴다

622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밀양아 성내에 사장구 소리 / 동문 안 큰애기 궁둥춤 추네

623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밀양아 성내에 사장구 소리 / 동문 안 큰애기 궁둥춤 춘다

62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밀양아 성내에 사장구 소리 / 동문 안 큰애기 궁디춤 추네

625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밀양아 성내에 사장구 소리 / 동문 안 큰애기들 궁둥춤 추네

626 김순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04, 207.

밀양아 성내에 사장구 소리 / 동무난 큰애기 엉덩춤만 추네

627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시상이 끝날까지 다 보아준다

62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시상이 끝날까지 다 보아준다

629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시상이 끝날까지 다 보아준다

63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우리 입 손 잡고 놀로 가세

631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에 한량들이 다 모여든다

632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에 한량이 다 모여든다

633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7.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에 한량이 다 모여든다

63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밀양아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의 한량이 다 모여든다

635 박종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0.

밀양아 영남루 사장구 소리 / 동부난 큰애기 엉덩춤만 춘다

636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8.

밀양에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의 활량이 다 모여든다

63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밀양에 영남루를 찾아를 오니 / 아랑에 애화가 전해 오네

638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밀양의 궁노늠 가락왕의 유람터 / 칠보단장 곱게 하고 구경가세

639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밀양의 남천강은 은어도 많구요 / 우리 집 세간에는 말썽도 많네

64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 님을 위로코 / 진주의 의암은 논개 충절 빛내네

64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 님을 위로코 / 진주의 의암은 논개 충절 빛내네

642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40.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의 님을 위로코 / 진주의 의암은 논개 충절 빛내네

643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1.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의 님을 위로코 / 진주의 의암은 논개충절 빛내네

64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5.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시상이 끝날 때까지 보러 간다

645 손기복 외, 밀양법홍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홍상원놀이 보존회, 2020.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십삼도 건달군이 다 모여든다

64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9.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 십삼도 건달군이 다 모여든다

647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밀양의 영남루 경치가 좋아 / 팔도에 한량이 다 모여드네

648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밀양의 풍각은 지금은 청도면 /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안 보이네

649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밀양이 빛나라고 영남루 있고 / 처녀 총각 잘 나라고 화장품 생겼네

650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밀양이라 국노숲에 연밥 따는 저 큰아가 / 누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차 곱노

65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 광복군 신고서 오시는 배래요

652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 광복군 신고서 오시는 배래요

653 한중수,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 『광복군가집』, 1943:9.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 광복군 신고서 오시는 배래요

654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 광복군 신고서 오시는 배래요

655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 광복군 실고서 오시는 배요

656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광복군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바라보세 바라보세 바라 보세 / 꺾지 말고 멀찌감치 바라보세

657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새싹회, 1961:6.

바라보세 바라보세 바라보세 / 꺾지 말고 멀찌감치 바라보세

658 윤석중,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9.

바라보세 바라보세 바라보세 / 꺾지 말고 멀찌감치 바라보세

659 이경림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바람아 강풍아 불지를 말어라 / 서풍에 낙엽이 다 떨어진다

660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바람에 흔들흔들 은박 갈 때 외로운 / 이내 심중 헤비는구나

66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바람이 불고요 비가 오니 / 낭군님 몬 올 줄 알고 문 걸고 잤소

662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바오달의 백마산성 창의 용사 / 결사보국 성터만은 아직 있네

663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3.

박남포 여관의 사장구 소리는 / 자다가 들어도 내 낭군 소리

66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밤 대추 실과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 / 얼음골과 호박소가 이름 높다

665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밤 대추 실과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은 / 삼복 얼음 얼음골과 호박소 이름 높다

66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0.

밤 대추 실과 많고 산수 고운 산내면은 / 삼복 얼음 얼음골과 호박소 이름 높다

667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부모님 처자를 이별하고서 / 왜놈을 짓부셔 승리한 후에

668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은 타는데 / 굴바우골 개골 물은 얼어붙었네

669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백두산 공화국 깃발이 날리고 / 제주도 한라산에 유격대가 섰네

670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ㄸ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백만장자야 돈 자랑 마라 / 니 줌치 돈 떨어지면 거러지 신세

671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백화가 우거진 남천강 언덕에 / 벌 나비 쌍쌍이 날아든다

67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백화가 우거진 남천강 언덕에 / 벌 나비 쌍쌍이 날아든다

673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백화가 우거진 남천강 언덕에 / 벌 나비 쌍쌍이 날아들 간다

67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버구 삼동 니리 들어 귀미 사촌 양어금에 / 칠리수가 합수되는 귀호라네

675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4.

버구뒋꼴 게시방우 경치가 좋아 / 자리등 넓은 평지 뒋자리로 명당

676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버구마을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요 / 우리 집 저 문디는 나를 안고 돈다

67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버구마을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요 / 우리 집 저 문디는 나를 안고 돈다

678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버구마을 섬뜰에 논배미 있구요 / 풀 무더기 작은 산이 조산 배미란다

679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버구마을 앞뜰은 섬뜰이구요 / 까막소 깊은 물은 새까맣다

680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버구마을 과거미산 잔치방우있구요 / 처녀 총각 맺어주는 혼인 방쿠

68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버구삼동 귀미사촌 양여금에 / 칠리수 합수되니 귀호에 거북 논다

68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버구삼동 귀미사촌 양여금에 / 칠리수 합수되니 귀호에 거북 논다

683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벌러 가네 벌러 가네 돈 벌러 가네 / 시골 처녀 구로공단으로 돈 벌러 가네

684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벌러 가네 벌러 가네 돈 벌러 가네 / 시골 처녀 구로공단으로 돈 벌러 가네

685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범 같은 우리 오빠 망보고 있다 / 야 야 처녀야 너거 오빠가 내 처남 되노라

68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벼락뎌 떨어지니 평리가 앞에 있고 / 손풍에 호시절은 풍류동이라네

687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3.

보러 가세 보러 가세 보러 가세 / 떠오르는 등근 달님 보러 가세

688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새싹회, 1961:6.

보러 가세 보러 가세 보러 가세 / 떠오르는 등근 달님 보러 가세

68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V』, 집문당, 1979:535.

보러 가세 보러 가세 보러 가세 / 떠오르는 등근 달님 보러 가세

690 이경립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보러 가세 보러 가세 보러 가세 / 떠오르는 등근 달님 보러 가세

691 윤석중,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9.

부모 동기 이별하고 부모 은덕 생각하면 / 태산도 부족하고 황해도 부족해

69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부모님 처자들 이별을 하고서 / 왜놈을 짓부셔 승리한 후에

693 차병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부모님 처자를 리별하고요 / 왜놈을 짓부셔 승리한 후에

694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부북면 굴밭 뒋난 밀산군 옛터 / 날이테밀 한골리는 점필제 나셨네

695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부북면 굴밭 뒷산 밀산군 옛터 / 날이테밀 한골리는 점필재 났네

696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부북면 굴밭 뒷산 밀산군 옛터이요 / 날이테 밀 한골리는 점필재 나신 터라

697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부북면 굴밭 뒷산 밀산군 옛터이요 / 날이테 밀 한골리는 점필재 나신 터라

69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8~69.

부산 부두가에 흰련락선 / 검은 연기 보동보동

69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부영덤 노적봉은 단정에 정기 타고 / 용회동 슬쩍 건너 사연리 모랫길에

700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2.

북간도 가신 낭군 돈 벌면 오건만 / 공동묘지 가신 낭군 오나 보네

70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불산 같이 더븐 날에 지슴 짙은 밭에 / 이 골 저 골 메어갈 때 신세타령

70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불상을 문었다고 부처골이라 / 무덤등 잔디밭은 아지랑이 핀다

70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비로도 치마 나올 적엔 삼팔선 갈릴 줄 몰랐고 / 다박머리 볍을 적엔 뽕다골 난 줄 몰랐소

70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빨래터 방망이 소리 툃툃툃툃거리고 / 처자들의 젓가슴은 출렁출렁거리네

70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빨리하소 빨리하소 빨리하소 / 시계가 열 시가 다 되었소

706 안유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사다함 가야친 곳 파서막 있건만 / 신라왕 유람하던 국노늬은 없네

707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사다함 가야친 곳 파서막 있건만은 / 신라왕 유람하던 국노늬 간곳없네

70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2.

사다함 가야친 곳 파서막 있건만은 / 신라왕 유람하던 국노늬 간곳없네

709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사명당 나신 동네 무안면 피나리 / 홍세원 삼비문은 밀양의 자랑

710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사명당 나신 동네 무안면 피나리오 / 홍세원 삼비문은 이 나라 자랑이라

71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3.

사명당 나신 동네 무안면 피나리오 / 홍세원 삼비문은 이 나라 자랑이라

712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사월이라 초파일 석가탄신일이니 / 절마다 연등 달고 소원 발원 하네

71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사회동 건너들면 변자당 나팔 고개 / 농암대 청석에 놀이 가자

714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4.

산 높고 골 깊은 데 물소리 처량하다 / 시냇가에 버들잎의 치경 소리

715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산군 가려 밀양 땅에 우뚝 솟은 영남루 / 우리나라 삼대 누각 그중의 제일

71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산나물 묵고 싶어 산나물 뜯나 / 총각 낭군 바래서 산나물 뜯지

717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121.

산나물 묵고 싶어 산나물 뜯나 / 총각 낭군 바래서 산나물 뜯지

718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산나물 묵고시과 산나물 뜯나 / 총각 낭군 바래서 산나물 뜯지

719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산도 설고 물도 설고 까막칸치도 설다 / 심중 입을 지다리다 인자 왔다

720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산이 높아야 골도 나 깊지 / 자그마한 신랑 품에 잠 잔동 만동

72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산천은 수려하여 항주를 버금하고 / 인심은 너덕하여 가을 달 호수로다

722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산천을 집을 삼고 천하가 내 집 / 앞뜰 뒤뜰 수풀 속을 헤메노나

72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137.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6 신옥화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7 신옥화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진용선, 2000:126~127.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3.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2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3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3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32 우계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산천이 고와서 내 여기 왔다 / 살다가 간 곳이라 찾아왔지

73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 왔다 / 우리 님이 살든 곳이라 내 여기 왔지

73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산천초목은 젊어 나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73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

산천초목은 젊어 나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73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 간다

73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간다

738 우제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간다

73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2.

산천초목은 젊어 가고 / 우리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74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6.

살기 좋다 금물곶들 은백 보한 쌀 / 밀양강 은어회 최고라네

741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살기 좋다 금물곶물 은백인 보한 쌀과 / 밀양강 은미회는 경상감사 안 부럽다

742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살기 좋다 금물곶물 은백인 보한 쌀과 / 밀양강 은미회는 경상감사 안 부럽다

74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0.

삼 동시 사 동시 다 모이거라 / 시오마씨 잡아다가 단지곶을 해 묵자

74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0.

삼각산 만댕이 허리 안개 돌고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45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삼각산 만댕이 허리 안개 돌고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46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117.

삼각산 만댕이 허리 안겨 돌고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4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삼각산 만디에 허리 안개 돌고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48 신영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9.

삼각산 만백 리 허리 안개 돌고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49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6.

삼각산 중허리 비 운동만동 / 나 어린 신랑 품에 잠잔동 만동

750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삼동서 사동서 모아나 보게 / 시오마씨 잡아서 단지곶하자

751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삼동서 사동서 모아나 보게 / 시오마씨 잡아서 단지곶하자

752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삼동서 사동서 모여나 보게 / 시아마씨 잡아서 멧돌 갈자

75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삼동서 사동서 모여나 보게 / 시아마씨 잡아서 멧돌 갈자

754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삼동서 사동서 모여나 보게 / 시아마씨 잡아서 풀이나 가자

755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삼동서 사동서 모여나 보게 / 시오마씨 잡아서 단지곰 하자

756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삼베옷을 걸쳐 입고 산천초목 헤메니 / 이등 저등 치다 보도 황장목이 귀하네

757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삼월에 경개인 듯 청도에 자미인 듯 / 일백 척 솟은 누각 악주에 황학

758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삼월이라 삼짓날 연자도 오는데 /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찾아올 줄 모르느고

75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분다네 /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매고 / 일제놈 쳐부쉬 조국을 찾자

760 차병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삼천세계 흰 구름은 난간 위에 쉬어가니 / 지나가는 저 나그네 악양루 부러 마라

761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9.

상남면 들어가는 예름다리 좁다마는 / 종남산 등에 지고 운랫들 참 넓구나

762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상남면 들어가는 예림다리 좁다마는 / 종남산 등에 지고 운랫들 참 넓구나

76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1.

상남면 예림다리 좁다마는 / 종남산 운넷들은 참 넓구나

764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상동면 유천강 박연정은 / 만년송 자랑보다 노는 고기가 더 좋네

765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새는 새는 남개 자고 쥐는 궁계 자고 / 우리 같은 아기들은 엄마 품에 잔데요

766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새소리 기는 짐승 구슬프게 우는데 / 내 신세 내 팔자 한탄한들 우야노

767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서방님이 가라계도 갈똥 말똥 / 써언참은 시애미가 날 가라하네

76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서방님이 오시는데 이 게 좋으면은 / 아들 놓을라 힘을 썼던 딸을 낳아서

76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6.

서산과 송운기터 충의를 자랑한다 / 명은 짧고 의는 기니 배우자 영전에서

770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서산과 송운기터 충의를 자랑한다 / 명은 짧고 의는 기니 배우자 영전에서

77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0~71.

서산과 송운기터 충의를 자랑하네 / 명은 짧고 의는 기니 충정을 배우자

772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 나를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77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9.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나를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날 두고 가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5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6 이용만 외, 감내계졸당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2.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8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느냐 / 날 두고 가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79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 나를 두고 가는 임은 가고 싶어가나

78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 날 두고 가신 임은 가고 싶어 가나

78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 날 두고 가신 님은 가고 싶어가나

782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 날 두고 가신님은 가고 싶어가나

783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석골사 석골폭포 천 길의 요란하고 / 폭포가 구만 되니 이름도 작은 금강

78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70.

석골사 석골폭포 천 길의 요란하고 / 폭포가 구만 되니 이름도 작은 금강

785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석골사 석골폭포 천길이 요란하고 / 폭포가 구만되니 작은 금강이라네

786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석양의 밝은 노을 응천에 비쳐오면 / 수국에 놀란 여울 깃전이 번거롭고

787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7.

석자 수건 걸어놓고 니도 나도 닦고 / 원앙금침 깔아놓고 잠잘 적에 주꾸마

788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선달그믐에 찬 데 보내놓고 / 지난 세월 근심 걱정 다 잊어보세

789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선달그믐에 한해 돌아보고 / 지난 세월 근심 걱정 다 잊어보세

790 이용만 외, 감내계졸당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선달그믐엔 한 해를 돌아보고 / 지난 세월 근심 걱정 다 잊어 보세

79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성질 닳네 성질 닳네 성질이 닳네 / 시골 총각 장가 못가서 다 틀렸네

79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40.

성질 닳네 성질 닳네 성질이 닳네 / 시골 총각 장가 못가서 다 틀렸네

79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1.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긋불긋

79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1.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긋불긋

795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79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797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798 리순옥 노래 [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33~34.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79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800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4.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맘에 핀 꽃은 울렁울렁

801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80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3.

세상천지 만물 중에 인생살이가 최고지 / 산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80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마라 / 가여운 내 곁을 오고 가지 마라

804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말거라 / 쌀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805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말아라 / 쌀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806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말아라 / 쌀뜰한 내청춘 다 늙어진다

807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말아라 / 쌀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808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 말아라 / 쌀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809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말아라 / 알뜰한 요놈의 청춘 다 늙어간다

81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세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말아라 / 우리네 청춘은 다 늙어진다

81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아라 / 쌀뜰한 내 청춘 다 늙어진다

81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3.

소쩍새 울거든 봄 온 줄 알고요 / 하모니카 불거든 임 온 줄 알아라

813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술가지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술어마시 고바야 좋다

814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술가지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아주마씨 고와야 좋다

815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술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아주마씨 고와야 좋다

816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술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아주마씨 고와야 좋다

81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2.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에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1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신아리랑연구소, 2014:240.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에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19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채보, 진용선, 2000:163.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서러 우느냐

820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서러워 하느냐

821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2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65.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23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24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송림 속에 우는 새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2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4.

송림 속에 우는 새는 처량도 하다 / 아랑의 원혼을 네 설워 우느냐

82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 / 정치 좋은 표충사 들러나 갈까

827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 / 정치 좋은 표충사 들러나 갈까

82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 / 정치 좋은 표충사 들어나 갈까

82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1.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 / 정치 좋은 표충사 들어나갈까

83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5.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 / 정치 좋은 표충사에 놀러나 갈까

831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송운대사 비각을 구경하고서 / 정치 좋은 표충사를 들어가 보세

83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술이라고 생기거든 취치를 말고 / 임이라고 생기거든 이별을 마라

833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술이라고 생기거든 취치를 말고 / 임이라고 생기거든 이별을 마라

83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2.

숫돌이 고와서 낫 갈러 왔나 / 처녀에 선 불라고 낫 갈러 왔지

835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7.

숫들이 고와서 낫 갈로 갔더니 / 큰애기 쳐다보니 낫칼이 넘었네

836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숫들이 고와서 낫 갈로 왔다 / 처녀 얼굴 선 불라고 낫 갈로 왔지

83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숫들이 고와서 낫 갈로 왔다 / 처녀가 고와서 선 보러 왔다

83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숫들이 고와서 낫 갈로 왔다 / 처녀에 선 불라고 낫 갈로 왔지

839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누부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

840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시누부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

841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시누부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

842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시아바지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왕골자리 떨어지니 생각이 난다

843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시오마시 잔소리는 쓴 비상 같고 / 술 담비 묵어보니 꿀맛 같네

84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마씨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드이 / 친정 부모 죽었다 부고가 왔네

845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시오머니 잔소리 설비상 같고 / 우리 낭군 맞고초는 꿀맛과 같다

846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1.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 고라 노니 생각이 난다

84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 고라 놓으니 생각이 났다

848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고라 놓으니 생각이 난다

84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6.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넓어 좋고 / 보리 방아 물 피어 놓으니 생각이 난다

850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8.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넓어 좋고 / 보리 방아 물 부어다 놓으니 생각이 난다

851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시오머니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고라 놓으니 생각이 난다

852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시오마시 방구는 앙살 방구 / 며느리 방구는 얇전이 방구

85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시오마시 죽거들랑 뒷골 야시 되고요 / 우리 서방 죽거들랑 일등 포수 되세요

85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마시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 고라 노니 생각이 난다

855 박희조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91.

시오마시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물 고라 노니 생각이 난다

856 한옥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6, 149.

시오마시 죽고 나니 방 널러 좋고 / 보리 방아 찼을 때면 생각이 난다

85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마시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친정 부모 죽었다고 전보가 왔네

85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0.

시오마시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친정엄마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859 박문호 외, 무안용호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마시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친정엄마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860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시오마시 죽으라고 축원을 했더니 / 친정엄마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861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오마씨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친정 부모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862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시오마씨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더니 / 친정 부모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86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시월아 봄철아 오고 가지를 맡겨라 / 알뜰한 아내 청춘이 늙어간다

864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시월이라 상달에는 조상님 묘사하고 /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묘사 참배 안 하나

86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시월이라 상달엔 추수 동장 마치고 / 집집마다 관등 달고 재수 소망 빌자

86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시집을 못 살고 갔으은 갔지 / 술담배 끊고는 내 못 살겠네

86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집갔네 시집갔네 시집을 갔네 / 까만색 벤츠 타고 시집갔네

868 안유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시집을 가이꺼내 시집살이 어떻노 / 후추 생강 맵다 해도 그 보가 더 맵겠나

86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시집을 못살면 걱정이 되나 / 야마도 공장에 실 풀러 가지

87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시집을 못살면 걱정이 되나 / 야마도 공장에 실 풀러 가지

871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시집을 못살면 걱정이 되나 / 야마도 공장에 실 풀러 가지

872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시집을 못살면 걱정이 되나 / 야마도 공장에 실 풀러 가지

87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 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 하세

874 리현기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진용선, 2000:126.

시화나 년풍에 목화풍년 들면 / 열석 새 무명짜리 혼수차림 하세

87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8.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차림하세

87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시화나 년풍에 호박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 하세

87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2.

시화나 년풍에 호박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하세

87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23.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 하세

879 리현기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하게

880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54.

시화나 연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하세

88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3.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인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하게

88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4.

시화나 년풍에 목화 풍년 들면 / 열석새 무명짜리 혼수 차림하네

88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1.

신 사주소 총각 낭군 신 사주소 / 새 신 사주면 남이 알고 돈을 살콧 날 주소

884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신농씨가 뒤뜰에 씨를 뿌려 / 밤에는 이슬 맞고 낮엔 태양 받아서

885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신농씨가 뒤뜰에 씨를 뿌려 / 밤이 되면 이슬 맞고 낮엔 태양 받아

886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신령한 정기 타고 인재가 걸출한 땅 / 축군 처럼 선비 많아 추로지향

887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신작로 넓어서 길 가기 좋고 / 전깃불 밝아서 임 보기 좋다

88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신작로 넓어서 길 가기 좋고 / 전깃불 밝아서 임 보기 좋다

889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심산궁곡 깊은 곳에 / 오작이 한 쌍이 입에 물고 논다

89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심신금곡 깊은 곳에 오작이 / 한 쌍 입에 물고 논다

891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4.

심산금곡 깊은 곳에 / 오작이 한 쌍이 입에 물고 논다

892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심산금곡 깊은 곳에 오작이 한 쌍이 / 입에 물고 논다

89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6.

십오야 밝은 달 구름 속에 놓고 / 꽃 같은 큰애기 내 품 안에 논다

89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십오야 밝은 달에 님 엮스면 / 단장에 상사로 눈물이 난다

895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162.

십오야 밝은 달에 님 없으면 / 단장에 상사로 눈물이 난다

896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십오야 밝은 달이 님 없으면 / 단장에 상사로 눈물이 난다

89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65~66.

십오야 밝은 달이 담 넘으면 / 당장에 상사로 눈물이 난다

898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십오야 밝은 달이 님 없으면 / 단장에 상사로 눈물이 난다

89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십오야 보름달은 구름 속에 놓고 / 뒷집에 처녀는 내 품에 논다

900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십오야 보름달은 구름 속에 놓고 / 뒷집의 처녀는 내 품에 논다

901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십오야 보름달은 구름 속에 놓고 / 뒷집의 처녀는 내 품에 논다

90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0.

아가씨 날 좀 보소 자세히 보소 / 겨울에 핀 꽃같이 사랑해 주오

903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아구마 삼삼 곱은 독에 누룩 디더 청감주요 / 꽃을 기린 유리잔에 나비야 한 상 권주하네

90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아깝다 내 청춘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 요모양 요꼴로 다 늙어간다

90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아깝다 내 청춘 시집 한 번 못가고 / 요 모냥 저 꼴로 다 늙어간다

90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64.

아깝다 내 청춘 시집 한번 못가고 / 요 모냥 요 꼴로 다 늙어간다

907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아나 장들기 힘 좋다더나 / 올거나 별면서 몸 풀어보자

908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축조선소리반, 1926.

아동산에 돋은 해 날티에 기우니 / 만풍에 다린 바람 백발만 날리네

909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5.

아랑 정절 추모하는 처녀들이 / 아랑가에 춘추제향을 받드네

91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4.

아랑을 추모하는 부녀들이 / 온 정성을 모와 아랑사를 지었네

91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아랑의 굳은 절개 구천이 살피사 / 피맺힌 원한이 풀리었네

912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아랑의 굳은 절개 죽엄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3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I』, 집문당, 1975:421.

아랑의 굳은 절개 죽엄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4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6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7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40.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5.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1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67.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920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아랑의 착한 마음씨 구천이 살피사 / 피맺힌 원한이 풀리어었네

92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아랑이 억울함을 호소코자 / 사또 앞에 나타나면 놀라서 죽네

922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아리 놓고 스리 놓고 닭 잡아놓고 / 소고기 육개장에 밥 말아 먹자

923 이경자 구술[당시 83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아리 놓고 쓰리 놓고 달 잡아 놓고 / 정든 님이 오시는데 밥 말아놓고

92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6.

아리 놓고 쓰리 놓고 닭 잡아놓고 / 정든 입이 오시는데 밥 말아놓고

925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아리 놓고 쓰리 놓고 닭 잡아 놓고 / 소고기 육장에 밥 말아놓고

92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5.

아리랑 고개는 무슨 아리랑 고개냐 /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927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개 / 정든 님 고개는 반고개라

92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5.

아리랑 고개다가 고구마로 심고 / 오는 총각 가는 처녀 다 뽑아 묵고

92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4.

아리랑 고개에 북소리 뚝뚝 나더니 / 한양서 복판에 태극기 날려요

930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광복군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아리랑 고개에 북소리 뚝뚝 나더니 /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펄펄 날리네

931 한중수,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 『광복군가집』, 1943:2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 아리랑 고개에 고구마를 심어

932 이경자 구술[당시 83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

홀로 몸달아 그리워하는 내 목소리 안 들리오

933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오 / 광복군 아리랑 불러보세

934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아부지 노루개 지게 목발이 노루개 / 우리 엄마 노루개 살림살이가 노루개

93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아이는 젓 돌라고 방바닥만 치는데 / 영감은 소매 잡고 낙노를 하네

93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아주까리 동백아 네 여지 마라 / 촌년들 기른 머리 내 눈꼴시다

937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아주까리 동백아 네 열지를 마라 / 촌년들 지름 머리 내 눈꼴시다

938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를 마라 / 시골에 큰애기 바람 난다

939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아주까지 동백아 네 열지 마라 / 촌년들 기름 머리 내 눈꼴시다

940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아주까지 동백아 네 열지 마라 / 촌년들 기름머리 내 눈꼴시다

941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아주까지 동백아 니 열지 마라 / 촌년들 기른 머리 내 눈꼴시다

942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아침 이슬 상추밭에 상추 따는 저 큰아가 / 잎일랑 뜯어 광주리 담고 즐기는 나를 주소

94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 /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리워 운다

944 이경자 구술[당시 83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리워 운다

945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리워 운다

94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아침이슬 채진 밭에 눈매 고운 저 큰아가 / 내 간장을 녹일라고 눈매조차 곱노

94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안장사 운주여래 억만 암 절도 많다 / 천주사 고려탑은 고려 문학 자취이다

94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1』, 밀양시, 2010:73.

안장사 운주여래 억만 암 절도 많다 / 천주사 고려탑은 고려 문학 자취이다

949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안장사 운주여래 억만암 절 / 천주사 고려탑은 고려문화 자취

950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안타깝다 인간사의 슬픔과 환락 사연 / 무어라 말을 하리 천고의 풍진을

951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알겠노라 지난 세월 읊조린 사연들 / 이름만 남겨두고 바람처럼 사라졌네

952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7.

알그닥 찢그닥 찢는 베는 / 언제나 다 찢고 친정에 갈까

953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앞동산 수목에 송학이 놓고 / 뜰복골 치마 바우에 신선이 논다

95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앞집 총각은 장가를 가는 데 / 뒷집의 처녀는 목 매로 간다

955 박문호 외, 무안용호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앞집 총각은 장가를 가는데 / 뒷집의 처녀는 목 메로 간다

95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 만단 말인가

957 이경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200, 203.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놓고 만단 말가

958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 만단 말인가

959 김본이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0, 153.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 만단 말인가

960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 만단 말인가

961 이재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2, 145.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 만단 말인가

962 정서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54.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만대이 없어 놓고서 만단 말인가

963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 망대이 언저 놓고 만단하는가

964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4.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만대이 올려놓고 만단 말가

965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앵기면 앵기고 말면 말지 / 고개만대이 올려놓고 만단 말가

966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49.

앵두나무 북받침은 안 치고도 소리나 / 기생첩은 삼짓돈을 풀어가네

96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야야 총각아 내 손목 놓아라 / 호랭이 같은 우리오빠 망보고 있다

96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야속해요 야속해요 야속도 해요 / 한번 가서 잊인 님이 야속해요

969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17.

야야야 처녀야 그 말씀 말어라 / 이삼 년만 더 가면 니 낭군 될거다

970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야야야야 총각아 내 손목 놔라 / 호랑이 같은 너거 오래비 내 처남 된다

971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야야야야 총각아 내 손목 놔라 / 호랑이 같은 너거 오래비 망보고 있다

972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야야야야 총각아 내 손목 놔라 / 호랑이 같은 올 오래비 니 처남 된다

973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야야야야 총각아 내 손목 놔라 / 호랑이 같은 올 오래비 망보고 있다

97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집에서 / 부귀공명 누리며 잘살고 있네

97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귀)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어떤의 잡놈이 님 좋다드냐 / 알고나 보며는 원수로구나

976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어사랑 사라랑 चु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베개수침 낮겨들랑 내 팔을 베어라

977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어스름거리던 나의 위로 어슬렁 빛나던 임의 위로 /
이 길로 가면은 닿으려나 동지하고 선달 즈음에 찾아주려나

978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어시랑 사라랑 चु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베개 수침 낮겨들랑 내 팔을 베거라

979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어시랑 사라랑 침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비개 주침 낮겨들랑 내 팔을 비어라

980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어시랑 살랑 चु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비개 주침 낮겨들랑 내 팔을 비어라

981 신명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7.

어시랑 살랑 침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베개 수침 낮겨들랑 내 팔을 베어라

982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어시랑 살랑 침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비개 주침 낮겨들랑 내 팔을 비어라

983 장석순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12, 215.

어시랑 살랑 침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비개 주침 낮겨들랑 내 팔을 비어라

984 이명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69.

어시랑 살랑 침겨들랑 내 품에 안기고 / 비개 주침 낮겨들랑 내 팔을 비어라

985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어쩔거나 어쩔거나 어쩔거나 / 노래하러니 생각 안 나는데 어쩔거나

986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어화 세상 벗님네들 산천 구경 함께 떠나 / 교남의 제일 누각 영남루 찾아보세

987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엇던에 잡놈이 니 좋다드냐 / 알고 나면 원수로구나

98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6.

엇던에 잡놈이 님 좋다드냐 / 알고 나면 원수로구나

98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엇던이 잡놈아 님 좋다드니 / 알고 보면 원수로구나

990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4.

에헤야아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 왔다 / 우런 님을 살던 곳이라서 내가 여기 왔지

99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4.

연화동 용소는 꽃밭 속에 있고요 / 사지상봉 상상봉에 상원암이 든다

99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연화봉 용소는 꽃밭 속에 있고요 / 사지상봉 상상봉에 상원암이 든다

993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영 걸렸네 영 걸렸네 영 걸렸네 / 가마 타고 시집가기 영 걸렸네

994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영 글렀네 영 글렀네 영 글렀네 / 가매 타고 시집가기는 영 글렀네

995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88.

영 글렀네 영 글렀네 영 글렀네 / 가매 타고 시집가기는 영 글렀네

99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4.

영남루 구부 구부 구부로 도니 / 아랑각 춘향이 춤 잘 춘다

997 0776(『밀양민요집』, 2010 수록)

영남루 구부구부 구부로 도니 / 아랑각 춘향이 춤 잘 춘다

99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38.

영남루 굽이쳐서 아랑각을 감돌고 / 중천에 뜬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999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3~105.

영남루 난간 위에 빗기대 앉아보면 / 부생 행락 다 잊은 옥루에 신선

1000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영남루 남천강 아랑각은 / 영남의 명승인 밀양의 자랑

100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5.

영남루 남천강 아랑각은 / 영남의 명승인 밀양의 자랑

1002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1.

영남루 명성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져 있네

1003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8.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매화가 전해 있네

100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4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서른 냇이 애달프다

1005 김동환, 『한국민요곡집(韓國民謠曲集)』, 음악춘추사(音樂春秋社), 1988:86.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설화가 전해져 오네

100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오네

100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오네

1008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09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0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1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2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3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233.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4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5.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5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114.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6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67.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7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채보, 진용선, 2000:163.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8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4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1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50.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2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3.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1021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다

102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다

1023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영남루 명승을 찾아드니 / 아랑에 애화가 여기 있네

102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38.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 아랑의 애화가 전해있네

1025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1.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강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26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49.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강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27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강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28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4.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가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2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강은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3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 남천강은 말없이 흘러만 간다

103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4.

영남루 비친 달은 교교한데 / 응천강 말없이 흘러간다

103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영남루 서푼 올라 사면을 둘러보니 / 진흥 단장한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추네

1033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5.

영남루 절경이 너무 좋아 /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1034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영남루라 올라보니 남천강이 감돌고 / 오매불망 우리임은 나를 안고 돈다

103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8.

영산 읍내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 뒷집에 큰애기 나를 안고 돈다

103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영산의 함박산 약수가 흘러 / 십삼도 처녀 총각 다 모여든다

1037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옛날은 풍각이다 지금은 청도면에 /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하나 안 보이네

103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3.

옛날은 풍각이다 지금은 청도면에 / 이름은 당숲인데 숲은 하나 안 보이네

1039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옛날의 신라 대왕 이곳을 변방으로 / 태평성세 이루어서 천년 도움 이뤘네

1040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8.

오뉴월에 흘린 땀 구시월에 열매고 / 천하대본 농부들 최고로세

1041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오는 소식 가는 소식 웃음꽃 소식 / 어깨동무 허리동무 아우러나 보세

1042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오는 총각 가는 처녀 다 뽑아 묵고 / 나는야 묵을 거는 한 뿌리도 없네

1043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오늘 하루 일손 놓고 영남루 찾아가서 / 세상만사 멀리하고 하루 신선 되어보세

1044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9.

오동 동동 추양에 달이 궁글 밝은데 / 입에 동동 생각이 저절로 난다

1045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오동나무 박달나무 팔자가 좋아 / 큰애기 손길에 다 돌아난다

1046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0.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하고요 / 큰애기 젓가슴은 울통불통하구나

1047 황중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62, 165.

오동나무 열매는 감실감실한데 / 큰애기 젓가슴은 울통불통하다

1048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오동나무 열매는 뽕질뽕질하구요 / 큰애기 젓가슴은 울통불통하구나

1049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 달각 하고요 / 큰애기 젓가슴은 몽실몽실 하구나

105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1.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달각하고 / 처녀의 젓가슴은 울통불통하다

1051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오동나무 열매는 알각딸각 하는데 / 큰애기 젓가슴은 몽실몽실하더라

1052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오라비 장가는 내명년에 가고 / 뒤뜰 논 팔아서 날 치워주소

1053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오르막 내리막 잔기침 소리 / 자다가 들어도 우리 임 소리

1054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0.

오월이라 단오날 추천을 하는데 / 우리 님은 추천할 줄 모르느고

105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오월이라 단오날에 그네를 뛰는데 / 초록 적삼 갈아입고 님 마중 가세

105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오이농장 고슴도치 휘젓는게 싫고 / 조선의 인민은 이승만이 싫어요

1057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58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옥양목 겹조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59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335.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0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1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2 박희남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08, 211.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3 안미정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41.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4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5 이필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27.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6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49.

옥자야 금자야 니 어데 가노 / 인물이 잘나서 청로로 간다

106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8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4.

옥양목 겹저고리 연분홍 치마 / 열두 번 죽어도 못 놓겠네

1069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옥황 선녀 내려와서 좋은 날을 받아서 / 김해라 명토 땅에 소금 한 척 가져다

1070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 고춧가리 비싸가 와 이래 좋노

1071 오세양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28.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 무안에 와 가지고 와 이래 좋노

1072 윤경란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60.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 밀양에 영남루는 와 이리 좋노

1073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와다시 목을 거는 한 뿌리도 없네

107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4.

요기조기 수시서 뒷골에 우째 갈꼬 / 지게 목발 받쳐놓고 향초 한 대 피우고

107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용두산 굽이굽이 남천강 감돌고 / 마암산 가루 막아 을자강 되었네

1076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용두산 굽이돌아 남천강 자아내니 / 마암산 가루 막아 을자강 이루었고

1077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2.

용두산 굽이돌아 남천강 자아내니 / 마암산 가루막아 을자강 이루었고

107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8.

용두산 굽이돌아 남천강이 감돌고 / 마음산 가로막아 을자강을 이뤘네

107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용두소 흐른 물에 정자선 올라보니 / 금시당이 좌우로 둘러 있네

1080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5.

용연산에 달이 솟아 우리 마을 비추니 / 가가호호 무사태평 풍농일세

108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용연산에 뜨는 달은 우리 동네 비추고 / 만어사의 정기 받아 복을 주소

108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용연산에 뜨는 달은 우리 동네를 비추고 / 만어사의 정기 받아 복을 주소

1083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우리 낭군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08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9.

우리 낭군 점슴 굵고 나무하로 갔는데 / 어퍼질나 발을 동동 짚신 구멍 났네

108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우리 부모 날 찾으시거든 /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1086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우리 아버지 노루개 지게 목발 노루개 / 우리 엄마 노루개 살림살이 노루개

1087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우리 엄마 재주 좋아 비 짜다가 나를 놓고 / 하늘님은 재주 좋아 별 나다가 비가 오네

108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우리 오래비 장가는 내명년에 가고 / 오동통통통 딱아 팔아서 날 치아주소

108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59.

우리 님 길 떠날 때 춘삼월에 온다고 / 춘삼월 다 지나도 다시 올 줄 모르네

109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우리 님이 오실 때는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09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0.

우리 집 영감은 북간도 갔는데 / 철없는 모판엔 봄풀만 나네

1092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우리 집 영감은 북간도에 갔는데 / 철없는 모판엔 풀만 난다

1093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우리가 살며는 몇백 년을 사나 / 아차 한번 죽으면 저승인데

1094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 사나 / 먹고나 씨고나 놀아보자

109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 사나 / 아차 한 번 주거지면 저승인 것을

109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우리가 살면은 몇백 년 사나 / 먹고나 쓰고나 놀아나 보자

109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우리나라 잘 나라고 백두산 났고 / 처자 총각 잘 나라고 화장품 났지

1098 조희운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23.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1099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1100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1101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광복군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1102 한중수, 한국광복군제2지대선전위원회, 『광복군가집』, 1943:9.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2.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70.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5 신옥화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2)], 진용선, 2000:126~127.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6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3.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8 신옥화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0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5~306.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당신의 말씀에 가슴이 풀린다

1110 우제강 창,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276.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서방님 말씀에 내 마음 풀린다

111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서방님 말씀에 내 마음 풀린다

1112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서방님 말씀에 내 마음 풀린다

111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우수야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 우리 님 말씀에 내 가슴 풀린다

1114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울 너머 담 너머 풀 배는 총각아 / 언제나 커 가지고 내 낭군 될라노

1115 <밀양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전시 가사, 2021.

울 너머 담 너머 풀 베는 총각 / 울통불통 팔뚝에 가슴 두근거리네

1116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울 너머 담 넘어 풀 베는 총각아 / 주는 참외 아니 받고 내 손목 덥석 쥘다

1117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18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19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0 리순옥 노래[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33~34.

울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1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4.

울 넘어 담 넘어 풀 베는 총각아 / 니 언제 어른 돼서 내 낭군 될래

1122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울 넘어 담 넘어 풀 베는 저 총각아 / 언제 어른 되서 내 낭군 될까나

112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4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2.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6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울 넘어 총각의 각피리 소리에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2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울 엄마야 울 아빠야 날 치아 주소 / 박속 같은 짓몽아리 곰팡이 핀다

112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울 오래비 장가는 내년에 가고 / 오동통통 딱깃 팔아서 날 치아주소

1129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울 오래비 장가는 후명년에 가고 / 다락 같은 황소 팔아 날 치아 주소

1130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울 오래비 장가는 내명년에 가고 / 다락 같은 황소 팔아 날 치아 주소

1131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울긋불긋 처마자락 / 대장부 간장을 다 녹인다

113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울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 물 걷는 처녀의 한숨 소리

113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울명주 단속곳 널러야 좋고 / 흥당목 치마는 붉어야 좋다

1134 신명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7.

월색이 교교한 남천강에 / 아랑 닛 달래며 선유이나 할까

113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월색이 조용한 남천강에 / 아랑 님 달래며 선유나 할까

1136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유격대 고사리 맛있는데 / 미국의 서양 요리 나는 싫어

1137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유월이라 유두 날 유두 명절이라 / 올것줄것 차려입고 님 마중 가세

113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2.

유월이라 유두날은 우리네 명절 / 창포에 머리 감고 입과 놀이 가세

113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0.

유유히 흐르는 남천강 물에 / 일엽선 띄우고 즐겨 볼까

1140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유유히 흐르는 남천강 물에 / 일엽선 띄우고 즐겨나 볼까

1141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유자탕자 의가 좋아 한 송이에 들어 열고 / 처녀 총각 의가 좋아 한 베개에 들어 비네

114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유천강 맑은 물가 상동면 박연정은 / 만년송 자랑 보다 노는 고기 더욱 좋고

114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69.

유천강 맑은 물가 상동면 박연정은 / 만년송 자랑 보다 노는 고기 더욱 좋고

1144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은독 낯독 정성으로 장을 담가서 / 은독 낯독 담은 장은 꿀맛 되어주소

1145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은하수 기울어서 누각 위에 드리우면 / 높다란 텅 빈 누각 아스라이 하늘 당네

114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7.

의복이 남루하니 골목 출입 난하네 / 저 양반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에 사네

1147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이 바람 저 바람 통일의 바람 / 이 나라 하나 되는 통일의 바람

1148 <통일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밀양아리랑 곡조에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아 부른 노래.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9.

이 산 저 산 야산 중에 슬피 우는 두견새 / 거지 봉사 어데 두고 야산 중에 울고나

1149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5.

이내 팔자 무심 죄로 나무지게 지고 / 이 산천을 해매니 처량하다

1150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이내 팔자 와 이렇노 신세타령 / 죽고 사니 청춘이라 골병이로세

115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이랴 자라 흘쩍기 큰 머슴아 노루개 / 우장 샷샷 곰방대 작은 머슴 노루개

1152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이불이 들썩 천장이 들썩 지붕이 들썩 / 혼자 자다 들어 자니 동네가 들썩

1153 <신밀양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에 노가바(노래가사 바꾸기)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운동가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7.

이산 저산 양산 중에 슬피 우는 송남새야 / 너의 집은 어디 두고 야산에서 앉아 우노

115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이서국 마전암 낙화듬은 / 말 없는 바위건만 이름은 전하네

1155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이서국 마전암과 임란 때 낙화들은 / 말 없는 바위건만 이름만은 아직 있네

1156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이서국 마전암과 임란 때 낙화들은 / 말 없는 바위건만 이름만은 아직 있네

115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9.

이승만 머리는 뽕쪽하고요 / 김성주 머리는 표주박 같다네

1158 <빨치산아리랑>(일명, 파르티잔아리랑)은 중공군가집(1953년), 조선지가(朝鮮之歌)에 한자(漢字)로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5.

이월이라 초하룻날 복을 빌어 / 농사 장원 해 달라고 정성을 드리네

1159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9.

이조왕 말년에 왜 난리 나니 / 이천만 동포들 살길이 없네

1160 차병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이조왕 말년에 왜 난리 나서 / 이천만 동포들 살길이 없네

1161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이조왕 말년에 왜 난리 나서 / 이천만 동포들 살길이 없네

1162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이팔청춘 젊은 놈이 어디 간들 못사나 /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서 가자

116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인간적인 영남루 웅장한 모습 / 반공에 우뚝 서 기관을 자랑하네

1164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2.

인간사 정한 운명 하늘의 뜻이런가 / 그 누가 이 운명을 무슨 수로 비껴 가라

1165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일 년 농사지는 콩을 장을 담가 보자 / 이 콩 저 콩 좋은 콩을 가리어서

1166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일 년 삼백육십일 관재 구설을 막으소 / 이웃 부정 원근 부정 막아주소

1167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일백 척 누각 아래 대나무 푸른 뜻은 / 목숨 바쳐 지켜온 아랑의 정절

1168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6.

일본아 대판아 얼마나 좋아 / 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1169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일본아 대판아 얼마나 좋아 / 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117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2.

일본아 대판아 얼마나 좋아 / 꽃 같은 날 두고 연락선을 타느냐

117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일본아 동경이 얼마나 좋아 / 꽃 같은 나를 두고 일본 동경 가나

1172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1.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매고 / 일제 놈 쳐부셔 조국을 찾자

1173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매고 / 일제놈 쳐 부셔 조국을 찾자

117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

일어나 싸우자 총칼을 매고 / 일제 놈 쳐부셔 조국을 찾자

1175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임 떡던 술잔에 녹이 나고 / 임 가신 그 길에 봄풀이 난다

1176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임대장 비석에 진땀이 나면 / 우리나라 전체가 좋고 나쁜 일 난다

1177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옹호놀이보존회, 2020.

님의 품에 자고 나니 아실랑 살랑 추워지네 / 아릴랑 살랑 추운 데는 신 살구 두 개가 제맛이지

117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있으랴 있으랴 굳은 맹세 하였건만 / 창외삼경 세우시엔 또 못잊어 우네

117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있으리라 있으리라 굳은 맹서 하였건만 / 창외삼경 세우시엔 또 못 잊어 우네

118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있으리라 있으리라 굳은 맹서하였건만 / 창외삼경 세우시엔 또 못 잊어 우네

118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53.

있으리라 있으리라 굳은 맹세 하였건만 / 창외삼경 세우시면 또 못 잊어 우네

1182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앞에서 푸대접하면 꽃잎에 자고 가고 / 꽃에서 푸대접하면 내 품에 자거라

118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0.

잘나고 못 나고 여부가 있나 / 화장품에 돈 들이면 다 잘났지

1184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잘나고 못나고 여부가 있나 / 화장품에 돈 딜이면 다 잘 났지

118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60.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 한세상 살아가면 내 낭군이

1186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 한세상 살아가면 내 낭군이

118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4.

재약산 단장면 물도 맑아 / 재약산 표충사 동방 제일 선찰

1188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6.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낮이 애달프다

1189 김상환,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40.

저 건너 대숲은 / 아랑의 설은 낮이 애달프다

1190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6.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서러운 낮이 애달프다

1191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I』, 집문당, 1975:420.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서러운 낮이 애달프다

119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3.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서런 낮이 애달프다

1193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서른 낮이 애달프다

1194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낮이 애달프구나

119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녀이 애달프다

1196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114.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녀이 애달프다

119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녀이 애달프다

1198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1.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 아랑의 설은 녀이 애달프다

1199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 건너 저 산은 지중산이드냐 / 오 동지선달에 꽃놀이 든다

1200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축조선소리반, 1926.

저 건너 저 집은 우리 님의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저 건너 저 집은 우리 임의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저 건너 저 집이 내 낭군 집인데 / 니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3 안철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4.

저 건너 저 집이 우리 임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4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6.

저 건너 저 집이 우리 임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5 신인자 구술[당시 69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0.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6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가고 내 수천리로다

1207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가고 내 수천리로다

1208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저 건너 저 집이 내 낭군 집인데 / 저 안 오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09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가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1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1.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가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11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저 건너 저 집이 정든 내 집인데 / 저 안 가고 내 안 가니 수천리로다

1212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저 건너라 게와집에 일등 처자가 들락날락 / 돌 물리로 자사 벨까 서발 낚시로 낚아낼까

121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9.

저 건너 저 산이 거지봉 산인가 / 열두 발 꾸구리가 들랑날랑한다

1214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 달이 저래 밝아도 구름 속에 놓고 / 울 오래비 요래 못나도 기생방에 논다

1215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 푸른 대밭에 마디도 많고 /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다

121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저기 가는 저 가시나 눈매를 바라 / 겹눈은 감고서 속눈은 떴네

1217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기 가는 저 무스마 눈매를 바라 / 못 본 듯 아니 본 듯 꼭 나만 보네

1218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저기 저 산 내 산이요 물은 유유히 흐르네 / 주야장천 흐른 물은 내 끼 아니다

1219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저기 저기 저 산이 계룡산이 드냐 / 오동지 선달에 고목이 피었네

122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716.

저기 저기 저 산이 계룡산이 드냐 / 오동지 첫달에 오곡이 피었네

1221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저기 저기 저 산이 계룡산이더냐 / 오동지 선달에 오곡이 피었네

122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66.

저기 저기 저 산이 종남산이더냐 / 오동지 선달에 오곡이 피었다

1223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4.

저기나 저 산이 쟁룡산이라지 / 오동지 선달이라도 꽃만 핀다

122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4.

저기야 저 산이 계룡산이라지 / 오 동지선달에도 꽃만 핀다네

1225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전깃불 밝아서 임 보기 좋고 / 신작로 넓어서 질 가기 좋네

1226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전라도 목포에는 유달산이 명산이요 / 강원도 경포대는 폭포수가 명수지

1227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정각산 슬픈 넘어 정승동 쉬어 가자 / 도래재 돌아 재악산에 죽림 가람 표충사

1228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2.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2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1.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0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傳文學大系) 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226.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31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162.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2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3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4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143.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5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정든 임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6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37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9.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 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3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2.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39 리현기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정든 임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0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정든 임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1 리현기 창 [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진용선, 2000:126.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52.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307.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1.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54.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3.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49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50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275.

정든 임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1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족조선소리반, 1926.

정든 임 정들은 것 가득 놓아 기꺼이 아득히 걸어가네 /
무심한 나의 님아 어두운 밤사이로 기꺼이 아련히 와 주면 안 되겠소

1252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서 입만 방긋

1253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167.

정든 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4 서정매 (채보),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1~12.

정든 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5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6 김경호 구술[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6.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7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0.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58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239.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59 우제강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8.

정든 입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60 이명자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67.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7.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23.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7.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4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66.

정든 입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5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체보, 진용선, 2000:162.

정든 입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6 우제강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3)], 진용선, 2000:127.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7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3, 104, 106.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6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5.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69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46.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0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1 <밀양아리랑>, 밀양시립박물관 전시 가사, 2021.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2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3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7.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4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7.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6 천용,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167~168.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8.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8 신명숙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07.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79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9.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128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9.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1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2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3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476.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6.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6 이경자 구술 [당시 83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1.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4.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1288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9.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서 입만 방긋

1289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4.

정든 입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서 입만 방긋

1290 리순옥 노래 [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33~34.

정월이라 대보름 달집을 짓네 / 달집에 불을 붙여 소원 성취하네

129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정절을 위하여 던진 목숨 / 후세에 그 이름 빛나도다

1292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정절을 위하여 던진 목숨 / 후세에 그 이름 빛나도다

129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3.

제비란 놈이 재주가 좋아 우편부 배달로 돌리고 / 황새란 놈이 다리가 질어 밀양아 영남을 돈단다

129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5.

종남산 만탱이 구름이 돌면 / 밀양 무안 천지에 눈비가 온다

1295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종남산 봉학이 죽신을 물고 / 오동나무 숲속으로 날 찾아오네

1296 이용만 외, 감내계졸당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종달새 울거던 봄 온 줄 알고 / 풀피리 불거던 입 온 줄 알아라

129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종달새 울거든 봄 온 줄 알고요 / 하모니카 불거든 입 온 줄 알아라

1298 이용만 외, 감내계졸당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종달새 울거든 봄 온 줄 알고 / 하모니카 불거든 입 온 줄 알아라

1299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리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종달새 울거든 봄 온 줄 알고 / 하모니카 불거든 입 온 줄 알아

1300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종달새 울거든 봄 온 줄 알고 / 하모니카 불거든 입 온 줄 알아라

1301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 님아 님아 언제나 다시 볼꼬

130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중각단 음지마을 오래풀 뒤로하고 / 더듬더듬 꼴짜 길을 끝까지 올라가네

130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지게 목발 등에 지고 연장 둘러메고 / 굴바우골 송곳방쿠 나무 하로 가자

1304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지게 목발 소를 물고 농기구를 메고서 / 앞뜰 뒤뜰 논밭을 갈아놓고서

1305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지게 목발 소를 물고 농기구를 메고서 / 앞뜰 뒤뜰 논밭을 갈아놓고서

1306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지척이 천 리라더니 도랑 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07 리현기 창[김태갑 수집, 중국 조선족 밀양아리랑(1)], 진용선, 2000:126.

지척이 천 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08 리현기 창,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237.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 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0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8.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였네

1310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2.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1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36.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12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23.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13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54.

지척이 천리라더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1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34.

지척이 천리라드니 도랑사인데 /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1315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1.

진담배대 씹지는 우리 할부지 노루개 / 우렁부렁 물레질 우리 할매 노루개

1316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진등산 우뚝 솟아 청룡이 놀고 / 질부산 주춤 앉아 백호가 논다

131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진등산 우뚝 솟아 청룡이 놀고 / 질부산 주춤 앉아 백호가 논다

131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질가집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주막집 술어마시 고마야 좋다

1319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질가집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주막집 술어마시 곱아야 좋다

1320 이용만 외, 감내게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참새미 물 길러 물동이이고 사랑살랑 / 물 넘쳐 저고리 흠뻑 젖었네

132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채색으로 단장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있네

132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1.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 있네

132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4.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있네

1324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I』, 집문당, 1975:420.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 있네

1325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114.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 있네

1326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채색으로 단청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 있네

1327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50.

채색으로 단청한 아랑각은 / 아랑의 유혼이 깃들어 있네

1328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4.

처녀 총각 연애 때는 여관방 골방이 좋고 / 할 때는 양단 이부자리가 좋다

1329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천 리를 갈까나 만 리를 갈까나 / 입을 따라 간다면 어데든지 가요

133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3.

천 리를 갈까나 만 리를 갈까나 / 입을 따라간다면 어데든지 간다네

1331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383.

천 리를 갈라나 만 리를 갈라나 / 입을 따라간다면 어디든지 가요

1332 리순옥 노래 [당시 77세, 중국 길림성 연길시], 진용선, 2000:33~34.

천 리를 갈라나 만 리를 갈라나 / 입을 따라간다면 어디든지 가요

1333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64.

천리를 갈까나 만리를 갈까나 / 입을 따라 간다면 어데든지 가요

1334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182.

천리를 갈까나 만리를 갈까나 / 입을 따라간다면 어데든지 가요

1335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275.

천왕산 좋거니와 단장면 물도 맑다 / 재약산 표충사는 동방제일 선찰이라

1336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천왕산 좋거니와 단장면 물도 맑다 / 재약산 표충사는 동방제일 선찰이라

133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0.

철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아주머니 고와야 좋다

1338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 밀양문화원, 2020:546.

철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술집에 아주머니 고와야 좋다

1339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밀양아랑제사십년사 별책부록』, 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50.

청로로 가지 말고 내 따라가자 /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 업어 주꾸마

134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1.

청명곡우 돌아왔다 갱자리 캐서 모 밟자 / 올망졸방 조랫질 정지꾼의 노루개

134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청실홍실 걸어놓고 원앙 마주 놓고 / 백년가약 맺을 적에 그때 댕기 주꾸마

1342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청실홍실 걸어놓고 원앙 마주 놓고 / 백년가약 맺을 적에 그때 댕기 주마

134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1344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많다

1345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에 희망도 많다

134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청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아랑 소식 전하러 네 급히 가나

134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4.

청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아랑 소식 전하려고 니 급히 가나

1348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청천에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엔 희망도 많다

1349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318.

청천에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엔 희망도 많다

135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438.

청천에 하늘엔 잔별도 많고 / 요내야 가슴엔 희망도 많다

135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3.

초동면 통바위 변춘정 살았고 / 검암리 이궁대는 신라의 궁터

1352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초동면 통바위는 변춘정 사신 데요 / 검암리 이궁대는 신라 때 궁터라지

1353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2.

초동면 통바위는 변춘정 사신 데요 / 검암리 이궁대는 신라 때 궁터라지

1354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초롱아 초롱아 임의 방에 불 밝혀라 / 임도 눕고 나도 눕고 초롱불은 누가 끌꼬

135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5.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원혼이 어렸네

1356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265.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려웠네

1357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4.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렸네

1358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Ⅲ』, 집문당, 1975:420.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렸네

1359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191.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렸네

1360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4.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렸네

1361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234.

축석루 아래의 남강물은 / 논개의 충혼이 어렸네

1362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326.

총각 낭군 만날라고 울타리 뚫다가 / 호박 넝쿨 걸려서 포도청에 간다

1363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총각 낭군 만날라고 웃다리 궁둥이 떨다가 / 호박넝쿨에 그을려서 삼 년씩을 산다네

1364 신영무 구술 [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총각낭군 안알라고 웃다리 궁걸 뚫다가 / 호박넝쿨에 걸려서 삼년 징역을 산단다

136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8.

총각들 사다 두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어서 날 받아 왔다

1366 신명숙 구술 [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5.

총각들 사다 주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어서 날 받아 왔네

1367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총각들 사다 주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어서 날 받아 왔네

1368 이필호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27.

총각들 사다 주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어서 날 받아 왔다

1369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총각들 사다 주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어서 날 받아 왔네

1370 김경호 구술 [당시 83세 남,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17.

총각들 사다 주는 윤 감사댁기 / 고운 띠도 안 묻었어 날 받아 왔네

1371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888888,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는 / 밀양의 영남루는 영남의 제일루라

1372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니 / 밀양의 영남루는 영남의 제일루

1373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추화산 등에 지고 종남산 바라보는 / 밀양의 영남루는 영남의 제일루라

137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8.

추화산 줄기 뺨은 무봉산 언덕 위에 / 조물주는 이 땅에다 영남루를 지었네

1375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축담 밑에 모깃불은 밤이슬에 꺼지는데 / 이내 가슴에 타는 불은 소낙비에도 안 꺼지네

137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춘삼월 강남제비 돌아오면은 / 우리님 날 보려 오신다네요

137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춘삼월 호시절에 꽃은 피어 늘어지고 / 잎은 피어 만발인데 어느 누가 오는가

137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충신과 열녀 효자 한 곳에 함께 난 / 이름은 삼강동에 충렬목 들머리라

137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3.

충신과 열녀 효자 한 곳에 함께 난 / 이름은 삼강동에 충렬목 들머리라

1380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충신과 열녀 효자 한곳에 난 곳 / 삼강동 충렬목이 들머리라

1381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친정 살림 알뜰히 살면 내 살림 되나 / 오동통통 다 팔아서 날 치아주소

1382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친정 살림 알뜰히 살면 내 살림 되나 / 오동통통 닭아 팔아서 술 받아먹자

1383 신영무 구술[당시 75세,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20.

친정 살림 알뜰히 살면 내 살림 되나 / 오동통통통 딱아 팔아서 날 치아주소

1384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59.

칠갓집 담장은 높아야 좋고 / 주막집 술은 마시고 봐야 좋다

1385 신명숙 구술[당시 54세 여, 밀양], 국립민속박물관, 2012:104.

칠보장 채색에 아랑각은 / 아랑에 슬픔이 잠겨 있네

1386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182.

칠월이라 백중날 호미걸이 하는 날 / 꿈배기 춤판 벌여서 놀아나 보세

1387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 만나니 / 은하수 까막까지 다리를 놓네

1388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6.

칠탄정 구비 돌아 등잔소에 니리 흘러 / 수십 질 장송 아래 월연대가 솟았네

1389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4.

콩밭 골 타는 총각 팔뚝 울통불통하구요 / 처자들의 가슴은 두근두근거려요

1390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콩밭 골 타는 총각 팔뚝 울통불통하구요 / 처자들의 가슴은 두근두근거리네

1391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콩밭 메는 처자 궁디 실룩실룩하구요 / 작은 머슴 가슴은 벌렁벌렁거리네

1392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콩밭 메는 처자 궁디 실룩실룩하구요 / 작은 머슴 가슴은 벌렁벌렁거리네

1393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날 보고 하래 /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394 안용환 노래, 밀양문화재단, 2012:232.

타도 타도 월타도 하니 산도 물도 설븐데 / 어느 누구 지다리다 그냥 왔다

1395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태고 때가 언제라고 신농씨가 어디소 / 농부들이 농사 짓기에 힘을 씀시다

1396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태고 때가 언제라고 신농씨가 어딿소 / 농부들이 농사에 힘을 씀시다

1397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 /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1398 차병길 노래, <독립군 아리랑>, 김기현, 2018:87~88.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 /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1399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 /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1400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던 광복군인들이 군가로 채택하여 부른 노래. 『광복군가집』, 1947, 수록.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3.

태극기 휘날려 만세 만만세 /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리라

1401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20.

태룡의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 뒷집의 아가씨는 나를 안고 돈다

1402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0.

태룡의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 뒷집의 아가시는 나를 안고 돈다

1403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파리답 지슬 따라 삼거리 업어 내려 / 귀내에 고기 낚아 범도연에 돛을 다네

1404 밀양 단장면 이동가(里洞歌),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63.

팔강적인 영남루 웅장한 모습 / 반공에 우뚝 서 기관을 자랑

1405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I』, 집문당, 1975:421.

팔강적인 영남루 웅장한 모습 / 반공에 우뚝 서 기관을 자랑

1406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112.

팔강적인 영남루 웅장한 모습 / 반공에 우뚝 서 기관을 자랑

140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I』, 밀양시, 2010:45.

팔랑 팔랑 팔랑 팔랑 수갑사 댕기 / 어깨야 넘어서 춤만 춘다

1408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3.

팔랑팔랑 팔랑팔랑 수갑사 댕기 / 어깨야 넘어서 춤만 춘다

1409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82.

팔월 보름 널 뛰다가 댕기 잃어뵈네 / 총각아 댕기 주소 주운 댕기 주소

1410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팔월보름 널뛰다가 갑사댕기 잃어뵈네 / 총각아 댕기 이리 주오 주운 댕기 이리 주소

141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4.

팔월이라 추석날에 햇밥을 짓고 / 집집마다 조상님께 제사하네

141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팽풍디미 층들은 굴방우 옆에 있구요 / 독피 동성 병산등은 병사의 벼슬 무덤

1413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풍광이 명미한 영남루에 / 피로한 심신을 풀어나 볼까

1414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 삼천리 이 강산에 풍년이 왔네

141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많네 / 가락의 구형황 정남정에서 항복

1416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7.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참 많고나 / 가락의 구형왕이 정남정서 항복하고

1417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72.

하남면 들어가니 고적도 참 많고나 / 가락의 구형왕이 정남정서 항복하고

1418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4.

하얀 강 또아리 뒸는 푸른 비단 같고 / 누각은 장려하여 웅부라 일컫네

1419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5.

학생도 단결 농민도 단결 시민도 함께 / 우리 노동자 앞장서니 온 나라가 불끈

1420 <신밀양아리랑>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에 노가바(노래가사 바꾸기)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의 곡조에 가사를 바꾸어 부른 운동가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97.

한세상 쌓인 풍진 씻은 듯이 사라져 / 강호 산천 거느리고 삼삼오오 짝짓네

1421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9.

한숨은 쉬면은 수심이 되고 / 수심은 늙으면 동남풍 된다

142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해지고 저문 날에 두견새 울고 / 너도 나와 같이 입을 잃고 보고파 우나

142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허공에 높이 솟은 누각의 달그림자 / 북극성 하늘 높이 때깔을 뽐내네

1424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9.

허리가 능청 키 큰 처자 달빛 고개 넘을 적에 / 명사수건 목에 걸고 총각 서이 뒤따리네

1425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호로병사 놔들아 아라리에 왜 왔노 / 못된 짓은 그만두고 고마 돌아가거라

1426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6.

호박은 늙으면 맛대가리가 없구요 / 사람은 늙으면 실 곳이 없네

1427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호박은 늙으면 맛이 좋고 / 사람은 늙으면 쓸 곳이 없다

1428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231.

호박은 늙으면 맛이 좋고 / 사람은 늙으면 썰 곳이 없다

1429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40.

호박은 늙으면 맛이 좋고요 / 사람은 늙으면 썰 곳이 없다네

1430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7.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 처녀 손바닥에 다 놀아나네

1431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68.

홍두깨 방망이 팔자가 좋아 / 큰애기 손에 다 놀아난다

1432 최선희 노래, 밀양문화재단, 2021:118.

화악 종남 저 멀리서 무봉산 에워싸니 / 옥쟁반 달그림자 영남루 비쳐 주네

1433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77.

화악산 물 모두 모아 되로못 되고 나니 / 달다 하던 감넛물도 이름만 남았구나

1434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83.

화악산물 모두 모아 되로못 되고 나니 / 달다 하던 감넛물도 이름만 남았구나

1435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 I』, 밀양시, 2010:69.

화악종남 저 멀리서 무봉산 에워싸니 / 옥쟁반 달그림자 영남루 비쳐주네

1436 박희학 작창,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47.

화악산 흐르는 물은 퇴룻못 되고 / 달다 하던 감넛물은 이름만 남았네

1437 밀양의 고적,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185.

황성낙일 찬바람에 쓸쓸한 심정 / 남천강 물과 같이 흘러나 볼까

1438 이중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184.

황하수 좋은 물에 장한 독을 담가서 / 은하수 좋은 물에 장한 독을 담가서

1439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참고자료

- 1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민요해설집』, MBC문화방송, 1994.
- 2 강동학 외, 『아리랑고개』, 안트워프 어소시에이트, 2014.
- 3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1963.
- 4 국립국악원, 『풀어쓴 민요』, 국립국악원, 2017.
- 5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 국립민속박물관, 2012.
- 6 김기현, 『아리랑과 지역문화』, 민속원, 2018.
- 7 김동환, 『한국민요곡집(韓國民謠曲集)』, 음악춘추사(音樂春秋社), 1988.
- 8 김상한, 『민요로 살펴본 밀양』, 공동체, 2019.
- 9 김성배, 『향두가·성조가』, 정음사, 1973.
- 10 김소운, 『언문 조선구비민요집』, 제일서방, 1933.
- 11 김연갑, 『북한아리랑 연구』, 청송, 2002.
- 12 김연갑, 『아리랑』, 집문당, 1988.
- 13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14 밀양고적보존회,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
- 15 밀양군, 『미리벌의 얼』, 밀양군, 1983.
- 16 밀양문화원, 『밀양문화원70년사(密陽文化院70年史)』, 밀양문화원, 2020.
- 17 밀양문화원, 『밀양지(密陽地)』, 밀양문화원, 1987, 2006.
- 18 밀양문화재단, 『잇다, 밀양아리랑』(전승현황 I), 밀양문화재단, 2021.
- 19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밀양(密陽)아리랑제사십년사(四十年史) 별책부록(別冊附錄)』, 밀양아리랑제집전위원회, 1999.
- 20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밀양아리랑 200선』,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2014.
- 21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밀양아리랑가사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2013.
- 22 박경수, 『아리랑의 문학 수용과 문화 창출』, 민속원, 2021.
- 23 박동영 외, 밀양백중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백중놀이보존회, 2021.
- 24 박문호 외, 무안용호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25 삼호출판사, 『우리민요선집』, 삼호출판사, 1991.
- 26 성경림·장사훈 공편,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 27 손기복 외, 광복군 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28 손기복 외, 밀양법흥상원놀이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0.
- 29 손기복 외, 법흥상원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30 손득현·손기복, <장독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 31 손득현·손기복, 법산(버구)마을 <밀양아리랑>, 밀양법흥상원놀이 보존회, 2021.

- 32 손진태, 『조선민족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 33 송두배 외, 아리랑친구들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34 신학상 편저, 『향토문화』 창간호, 밀양고적보존회, 1953.
- 35 안유환 외, 새터가을굿놀이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36 윤석중, 『우리 민요 시화곡집』, 새싹회, 1961.
- 37 이경림 외, 어린이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38 이문성, 「민속콘텐츠 밀양아리랑의 고유성과 확장성」, 『인문사회21』 12권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39 이소라, 『한국의 농요』, 현암사, 1985.
- 40 이용만 외, 감내계줄당기기 편, <밀양아리랑>(CD), 밀양시, 2020.
- 41 이우택·김삼수 외, 무안편 <밀양아리랑>, 무안용호놀이보존회, 2020.
- 42 이종협, 『아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선일사, 2018.
- 43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 집문당, 1961.
- 44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 집문당, 1974.
- 45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II』, 집문당, 1975.
- 46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IV』, 집문당, 1979.
- 47 임동권,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V』, 집문당, 1980.
- 48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49 정진호, 『한국민요대전집(韓國民謠大全集)』, 소리출판사, 1978.
- 50 정호영, 『아리랑고개』, 한국학술정보, 2009.
- 51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2.
- 52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박물관, 2017.
- 53 진용선, 『아리랑』, 아리랑아카이브, 2019.
- 54 진용선, 『아리랑로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7.
- 55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 56 진용선,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14.
- 57 진용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6.
- 58 진용선,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 수문출판사, 2000.
- 59 천용 능현, 『한민족의 얼을 품은 노래 아리랑』, 한누리미디어, 2015.
- 6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편찬위원회, 『경남민속자료집(慶南民俗資料集)』,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부, 1993.
- 61 한태문 외, 『밀양민요집(密陽民謠集) I』, 밀양시, 2010.
- 62 ‘광복군 아리랑’ 필사본 첫 발견, 강원도민일보.
- 63 <<http://www.kado.net>(2006. 01. 24. 일자)>
- 64 김금화 소리, 박춘재 장구, <밀양아리랑타령>(SP), 일촉조선소리반, 1926.
- 65 <<https://www.youtube.com/watch?v=wUAs1aAIIpc&t=5s/>(2021. 10. 15. 검색)>
- 66 김영임 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CD), 동양레코드, 1995.
- 67 <<https://www.youtube.com/watch?v=d7lQl670IVc&list=PLTkIzcXRzyRad6yp3mlhB3WRSUdKECy9y&index=120/>(2021. 10. 10. 검색)>
- 68 김영임, <밀양아리랑>, 아리랑(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기념앨범), RIAK, 2016.
- 69 <<https://music.bugs.co.kr/track/30340808/>(2021. 10. 10. 검색)>
- 7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71 <<http://www.heritage.go.kr/heri/>(2021. 8. 19. 검색)>
- 72 송소희 노래(작사), 이지수 작곡, <밀양아리랑(雪花)>(MV), 워너뮤직코리아, 2019.
- 73 <<https://www.youtube.com/watch?v=2Cvdk4DzjI0/>(2021. 11. 1. 검색)>
- 74 유네스코와 유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75 <<https://heritage.unesco.or.kr/6316-2/>(2021. 8. 26. 검색)>
- 76 이은주 노래, <밀양아리랑>, 한국 민요집 제2집(LP), 대한음반제작소, 1995.
- 77 <<https://www.youtube.com/watch?v=kqdHqfNca4g&list=PLTkIzcXRzyRad6yp3mlhB3WRSUdKECy9y&index=143/>(2021. 10. 15. 검색)>
- 78 정창관의 아리랑.
- 79 <https://www.youtube.com/channel/UCxqVWvcx12Ua_FfZzejC0bg/(2021. 10. 9. 검색)>

있다,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 노랫말 모음집

발행인 박일호 밀양시장·밀양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재)밀양문화관광재단

연구책임자 안남일

참여연구원 이문성, 박종덕, 나승희, 김명기, 서나현, 정고운

기획 이치우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정고운 밀양문화관광재단 연구팀장

김명원 밀양문화관광재단 연구원

자문 윤정일 밀양아리랑보존회장

손정태 밀양문화원장

김현봉 밀양예총회장

디자인·제작 (주)사월오일 정유진, 김유미

발간등록번호

ISBN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저작권자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iryang Cultural & Tourism Foundation, 2022.

